

제2023-15회
(정기회)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5호

중앙집행위원회

일시 2023. 7. 24. 21:00

장소 원격영상회의 (회의 참가 링크: <https://kaist.zoom.us/j/86451877219?pwd=NXVUK1ZxanNQbFVXc2VBQnJiWnRnZz09>)

의사 일정 보고안건 제1호 / 보고안건 제2호 / 보고안건 제3호 / 보고안건 제4호 / 보고안건 제5호 / 보고안건 제6호 / 보고안건 제7호 / 심의안건 제1호 / 심의안건 제2호 / 심의안건 제3호 / 심의안건 제4호 / 인준안건 제1호 / 인준안건 제2호 / 논의안건 제1호 / 논의안건 제2호 / 논의안건 제3호

부의 안건

- 보고안건 제1호 총학생회장단 보고
- 보고안건 제2호 단위별 운영 보고
- 보고안건 제3호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위원회 운영 보고
- 보고안건 제4호 의결기구 간사 선임 보고
- 보고안건 제5호 신소재공학과 과대표 사퇴 보고
- 보고안건 제6호 학생문화공간위원회 부위원장 사퇴 보고
- 보고안건 제7호 학생문화공간위원회 부위원장 내부호선 보고
- 심의안건 제1호 VOK 2023년도 상반기 추가경정예산 심의안
- 심의안건 제2호 동아리연합회 2023년도 상반기 추가경정예산 심의안
- 심의안건 제3호 뇌인지과학과 학생회 설립 인준안 발의안
- 심의안건 제4호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 설립 인준안 발의안
- 인준안건 제1호 중앙집행위원회 국서 체계 동의안
- 인준안건 제2호 중앙집해위원회 국장 임명 동의안
- 논의안건 제1호 2023년도 하반기 학생회비 분배 비율 논의안
- 논의안건 제2호 번역평가제도 개편 논의안
- 논의안건 제3호 감사원 위원 결원 보충 논의안

개회·정회·유회 또는 폐회의 일시

개회 일시 2023. 7. 24. 21:05

폐회 일시 2023. 7. 24. 24:41

○개회 시 출석 중앙운영위원(16인)

총학생회장 강동재 / 부총학생회장 한정현 / 동아리연합회 회장 오윤석 / 기술경영학부 학생회장 고은서 / 물리학과 학생회장 박세현 / 바이오및뇌공학과 학생회장 왕예준 / 산업디자인학과 학생회장 윤서진 / 산업및시스템공학과 학생회장 김도운 / 생명과학과 학생회장 안준서 / 수리과학과 학생회장 박재익 /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이창섭 / 융합인재학부 학생회장 김시은 / 전기및전자공학부 학생회장 홍의상 /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 / 항공우주공학과 학생회장 윤이습 / 화학과 학생회장 최우정

○결석·지각·조퇴 중앙운영위원

건설및환경공학과 학생회장 이동현(결석) / 새내기학생회 회장 송채빈(결석) / 생명화학공학과 학생회장 이돈영(결석) / 원자력및양자공학과 학생회장 박성빈(결석) / 기계공학과 학생회장 손선호(지각) / 동아리연합회 회장 오윤석(조퇴) / 기계공학과 학생회장 손선호(조퇴) / 바이오및뇌공학과 학생회장 왕예준(조퇴) / 산업및시스템공학과 학생회장 김도운(조퇴) / 생명과학과 학생회장 안준서(조퇴) / 수리과학과 학생회장 박재익(조퇴) /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이창섭(조퇴)

○서기

중앙집행위원회 재정사무국장 전성원

○산하 위원회 측 참석자

뇌인지과학과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 위원장 이재경 / 반도체시스템공학과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 위원장 권한대행 김민준

○집행기구 측 참석자

학생문화공간위원회 사업국원 이진우

○전문기구 측 참석자

감사원 원장 김현섭

○특별기구 측 참석자

VOK 국장 김선호

○참관인

김대희(21, 건설및환경공학과)

의 사

(개회 21:05)

○의장 한정현: 예정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사무국장께서는 성원을 점검하여 간사께 성원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정현: 간사께서는 성원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서진: 네 성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 중앙운영위원 32명 중 24명 재석했습니다.

○의장 한정현: 네 저희 재정 중앙운영위원 21명이 고요. 위원 수가 재석한 위원 수가 15명인 것으로 보입니다. 서기님 맞나요? 네 확인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현재 시각 21시 05분 제2023-15회 중앙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재정 중앙운영위원 21명 중 16명 재석으로 정정

네 금일 회의에서는 7건의 보고안건과 4건의 심의안건 2건의 인준안건과 3건의 논의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배부해드린 안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이위키 및 ARA에 업로드한 소집공고에서도 안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학우들께 송출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운영위원회 의장 한정현입니다. 본 회의는 제2023-15회 중앙운영위원회 7월 정기회의로 학생회칙 제55조제1항에 따라 매달 정기적으로 소집되는 회의입니다. 회칙에 따라 자동으로 소집되는 회의이며 한 달 동안 본회 산하기구의 사업 및 업무를 공유하고 논의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겠습니다. 2023년 1월, 첫 중앙운영위원회 정기회의까지가 1년 동안 의결기구 업무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이고, 두 번째 정기 회의까지가 제반업무들의 효능을 일정 부분 체감함과 동시에 봄학기 사업을 준비하는, 상반기 사업을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했다면 7월 정기회의부터는, 7월 3분기 정기 전학대회

와 8월 정기중앙운영위원회 등 의결기구를 거쳐서 하반기의, 가을학기의 사업을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금일 회의에서는 하반기 학생회비 분배 비율을 논의하는 안건 등 하반기 회계에 관련된 안건들이 부의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KAIST 학부 총학생회에 새로운 학생 자치가 태동하고 있습니다. 뇌인지과학과 및 반도체시스템공학과 등 신규 학과가 설립됨과 동시에 그 학과 학생들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신규 학과 학생회가 지난 4월 및 5월부터 설립준비위원회를 발족하여 두 달에서 세 달 동안 풍부한 활동을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차주에 개최되는 전학대회 정기회의에서 설립 인준안을 의결하기 위한 발의안을 중앙운영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해당 안건이 의결이 되면 차회 전학대회에서 설립 인준안을 심의하게 되고, 해당 인준안을 의결하게 되면 KAIST 학부 총학생회에 새로운 두 개의 학생자치기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해당 안건들을 위해 많이 힘 써주신 뇌인지과학과 및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 위원장단, 담당 위원들, 그리고 중앙운영위원회 산하에 설립 준비위원회를 설치할 당시에 자문위원으로 참석해 주신, 자문위원으로 협력해 주신, 중앙운영위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추후 관련 활동에 있어도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금일 회의에는 여러 안건에 대한 설명을 위해 여러 기구의 참관인들께서 시간을 내주셨는데, 이 또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으로서 모든 회의 구성원들이 회의에 참여할 수 있으며, 활발하고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한 논의는 유관기구의 사업, 그리고 다음 반기 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본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모든 구성원분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현: 보고사항입니다. 간사께서는 보고사

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서진: 네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2023-14회 중앙운영위원회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6월 26일 21시 04분에 개최하여 6월 27일 00시 19분에 폐회하였습니다. 7건의 보고안건과 5건의 심의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보고안건 제1호는 원안대로 접수하였습니다. 보고안건 제2호도 원안대로 접수하였습니다. 보고안건 제3호부터 제7호까지도 원안대로 접수하였습니다. 심의안건 제1호와 2호도 원안대로 접수하였습니다. 심의안건 제3호는 원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심의·의결하였으며, 학생회칙 일부개정회칙안 발의안을 제32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제38조의2'를 각각 '제39조'로 수정하였습니다. 심의안건 제4호는 원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심의·의결하였으며, 의결기구운영세칙 전부개정세칙안 발의안을 제21조제1항 중 '대의원이 전학대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청가서 또는 사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를, '대의원이 전학대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어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으며, 제25조제1항 중 '중앙운영위원이 중앙운영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청가서 또는 사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를, '중앙운영위원이 중앙운영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어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청가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심의안건 제5호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회의에 본 회의명으로 부의된 안건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사항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사전에 공지한 바와 같이 소집공고에 부의한 안건의 순서대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사전에 제출된 의사일정의 변경 동의를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사전에 공지한 내용과 같이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별도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소집공고에 부의한 안건의 순서와 같이 보고안건 심의, 안건 인준 안건 논의안건 순서대로 심의하는 것으로 확정하겠습니다.

1. 보고안건 제1호 총학생회장단 보고

○의장 한정현: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보고안건 제1호 총학생회장단 보고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상정근거는 학생회칙 제56조제6호입니다. 7월 12일자로 학생회칙 일부개정회칙이 공포됨에 따라 안건상정 근거가 기존 제56조제1호에서 제56조제6호로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학생회칙 제74조제2항에 따라 총학생회장단이 의결기구에 본회 및 본회 회원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부터는 총학생회장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총학생회장 강동재: 안녕하세요. 학부 총학생회장 강동재입니다. 주요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상세히 작성해 두었기 때문에 큰 제목만 발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처-학부-대학원 총학생회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간담회에서는 기출문제(즉보) 공유 개선안, 학사과정 GPA 백분위 점수 환산 방식 개선안 그리고 P/NR 제도 후속 대응 논의안을 위한 이야기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청년정책상황 점검회의 - 청년과 함께 바로 서는 대한민국>이라는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제2023-5회 학생상별위원회 그리고 제2023-4회 교과과정심의위원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 TF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K-Supporters 프로그램 관련 소통 국제화위원회 미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총학생회장단 보고와 관련하여 질문이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학생회장단 보고에 관하여 별도로 질문이나 의견이 없다면 보고안건 제1호를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장 한정현: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안건 제1호 총학생회장단 보고를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2. 보고안건 제2호 단위별 운영 보고

○의장 한정현: 보고안건 제2호 단위별 운영 보고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상정근거는 학생회칙 제56조제6호입니다. 학생회칙 제58조제2항, 제80조제5항, 제91조제3항, 제101조제2항 및 제117조제2항

에 따라 각 단위에서 의결기구에 정기적으로 본회의 운영사항을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각 단위 기구장께서는 운영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보고 사전에 발언 순서와 시간을 정하겠습니다. 27개 단위에서 보고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단위별로 발언 시간은 3분 이내로 정하겠습니다. 또한 발언 순서는 본 표에 적혀 있는 순서대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앙운영위원회 소속 단위가 아니어서 금일 참관하지 않은 단위 보고사항은 제가 주요 내용만 대리로 보고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타 안건의 처리를 위해 금일 회의에 참관한 단위에서는 함께 보고 사항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선 단위의 보고가 끝나면 제가 별도로 발언권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다음 단위에서 이어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앙집행위원회부터 부탁드립니다.

○총학생회장 강동재: 네 총학생회장 강동재입니다. 중앙집행위원회 활동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기획국에서는 KAMF 팀장단 회의, 학생지원팀, 그리고 행사 대행업체 미팅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복지팀에서는 신규 제휴업체 선정 및 홍보를 진행하였고 이 업체로는 유심사와 운전선생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재정사무국에서 활동인증서 발급 제도 개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복지팀에서 교양분관 그리고 문화관의 공간 이용과 사석화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메일을 발송하였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팀에서는 교내 쓰레기통 문제 해결을 시설팀에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한 확인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팀에서는 GPA 백분위 점수 환산 개정을 위한 조치를 진행하였으며 이는 앞서 총학생회장단 보고에서 말씀드린 6월 28일 학생처장 정규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서 본 사안을 교무처에 전달할 수 있도록 최종 PPT를 제작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현: 학생복지위원회는 제가 대리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12일에 진행된 협동조합 TF 회의에 참여하여 관련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행사준비위원

회의 경우에는 2023 POSTECH-KAIST 학생대제전 준비를 위해 매주 일요일 팀장 회의를 진행하고, 합동 회의 일정을 조율했으며, POSTECH과 팀별 회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네 학생문화공간위원회부터 이어서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문화공간위원회 사업국원 이진우: 네 학생문화공간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2일 신학관 사용 수칙 세미나를 실시하였으며 7월 21일 신학관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방학 중 상근을 지금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6월 21일 내부 임원진 선출을 진행하였습니다.

○의장 한정현: 건설및환경공학과에서도 이어서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보고사항 없음으로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관인 김대희: 건설및환경공학과 보고사항 없습니다.

○기계공학과 학생회장 손선호: 네 기계공학과 보고사항 없습니다.

○기술경영학부 학생회장 고은서: 기술경영학부 보고사항 없습니다.

○물리학과 학생회장 박세현: 네 물리학과 보고사항은 물리학과 교류 행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및뇌공학과 학생회장 왕예준: 대학원생들과 함께 e-Sports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산업디자인학과 학생회장 윤서진: 산업디자인학과 보고사항 없습니다.

○산업및시스템공학과 학생회장 김도운: 산업및시스템공학과 다음과 같은 보고사항이 있습니다.

○생명과학과 학생회장 안준서: 생명과학과 보고사항 없습니다.

○의장 한정현: 네 생명화학공학과부터 이어서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생명화학공학과 결석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수리과학과 학생회장 박재익: 수리과학과 보고서

항 없습니다.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이창섭: 신소재공학과 보고사항 없습니다.

○융합인재학부 학생회장 김시은: 융합인재학부 보고사항 없습니다.

○의장 한정현: 네 원자력및양자공학과는 결석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전기및전자공학부 학생회장 홍의상: 전기및전자공학부 보고사항 없습니다.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 네 전산학부 7월 20일에 네덜란드 아인트호벤 대학교에서 KAIST 전산학부를 방문한 학생들과 전산학부 학생들 간의 교류 사업을 진행했고요. 네 그리고 SoC 모임 선물 배부 예정입니다. 그래서 배부를 이번 주 중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항공우주공학과 학생회장 윤이습: 항공우주공학과 OTL 후기 이벤트 진행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화학과 학생회장 최우정: 화학과 워크샵 기획 회의 진행했습니다.

○의장 한정현: 새내기학생회는 결석인 걸로 확인됩니다. 새내기학생회 운영 보고 사항은 기재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아리연합회 회장 오윤석: 동아리연합회 활동 보고서 검토 및 지원금 자료 검토했고, 재배치 채점 예정입니다.

○의장 한정현: 네 이어서 4개 전문 기구는 제가 대리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는 2022 하반기 회계감사 보고서 후속 조치를 이행하였습니다. 2022년도 하반기 정기 감사 필수 제출 서류를 미제출하여 '의결거절' 처리된 비상대책위원회와 VOK에 대해 제 2023-5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후속 조치를 이행할 것을 의결하였으며, 해당 단체에 대해서는 여름학기 종강 전까지 사과문을 게재할 것을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2023년도 상반기 정기 회계감사 매뉴얼을 작성하였습니다. 감사원 내부 회의를 통해 2023년도 상

반기 정기 감사 매뉴얼을 작성했으며, 매뉴얼 내에서 서로 상충되는 내용들을 제거하였고, 일부 규정들에 대해 설명을 늘려 이해하기 좀 더 쉽도록 변경했다고 합니다. 지출내역증빙자료 양식을 변경하여 각 기구에서 제출하여야 할 서류 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고 하며 상반기에 변경된 예산안 양식에 맞게 예결산 양식도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된 매뉴얼과 양식은 7월 31일 월요일 전까지 공지할 예정이며, 관련해서는 중앙집행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일괄적으로 예결산안 및 감사 서류 제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오늘 산하기구에서 업무를 처리하면 좀 더 용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문화자치위원회에서는 회칙에 따른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소통국제화위원회에서는 상시적으로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2월 21일부터 30일까지 학부 총학생회 및 산하기구의 공지를 모니터링하고, 번역 여부를 평가하여 번역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에서는 기한 내에 운영 보고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금일 오후 중에 경위서 및 안건 내용을 제출하였고, 해당 내용은 8월 정기 운영 보고에 함께 포함해서 제출하겠다고 경위서에 기재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안건 제2호 단위별 운영 보고에 관하여 질문이나 의견을 받겠습니다.

○의장 한정현: 별도로 질문이나 의견이 없으면 보고안건 제2호 단위별 운영 보고를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장 한정현: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안건 제2호 단위별 운영 보고를 원안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3. 보고안건 제3호 중앙운영위원회 산하위원회 운영 보고

○의장 한정현: 보고안건 제3호 중앙운영위원회 산하위원회 운영 보고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상정근거는 학생회칙 제56조제6호입니다. 제안이유는 학생회칙 제62조제3항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 산하위원회에서 중앙운영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본회의 운

영 사항을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위원회 개최 실적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현재 회칙 개정특임위원회, 뇌인지과학과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 반도체시스템공학과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로 세 개의 산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각 지난 한 달 동안, 정확히는 지난 6월 정기 중앙운영위원회 안건 제출 시점 이후부터 이번 7월 정기 중앙운영위원회 안건 제출 시점까지 각각 3회, 1회, 2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붙임 자료를 통해 중앙운영위원회 산하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칙개정특임위원회 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023-5회 회칙개정특임위원회 회의부터 제6회 제7회까지 학생회칙 제3장 집행기구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검토 및 논의하였고 이후 회의에서는 제4장 자치기구에 관하여 규정 및 규정에 대해 검토 및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뇌인지과학과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의 경우에는 7월 17일 제2023-5회 회의를 개최했으며 금일 회의에 부의한 제출 서류를 심의하였습니다. 반도체시스템공학과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의 경우에는 7월 20일에 제2023-4회 7월 23일에 제2023-5회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마찬가지로 금일 회의에 부의한 학생회 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안건 제3호와 관련하여 질문이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학생회장 강동재: 질문 하겠습니다.

○의장 한정현: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총학생회장 강동재: 네 회칙개정특임위원회 활동 중에 제2023-7회 7월 9일 자로 이루어진 기타 논의의 제일 마지막 하이픈에 차회 회의까지 작성하고 차회 회의에서 검토하기로 함이라고 작성되어 있는데 이게 7월 16일 자로 이루어진 제2023-8회 차회 회의에는 그런 내용이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의장 한정현: 보시는 바와 같이 위임, 위탁에 관한 회칙에 관한 논의를 차회 회의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내부적인 일정으로 인하여 제2023-9회 회의로

기간을 연장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2023-8회 회의 관련 내용은 제4장과 학생회칙 일부개정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질문 주신 회칙에 관해서는 현재 제2023-7회 회의 이후로 추가로 의견이 나오거나 업무가 진행된 건 없습니다.

○총학생회장 강동재: 네 답변 감사합니다. 하나 한 가지 더 여쭙봐도 될까요?

○의장 한정현: 네 괜찮습니다.

○총학생회장 강동재: 네 제2023-8회에서 논의안건 제2호 학생회칙 일부개정 논의안의 경우에는 이 오른쪽 항에 작성된 내용이 없는데 이 부분은 따로 특별히 노트해 주실 내용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의장 한정현: 통상의 내용과 같이 검토 자료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관련 내용을 개정하기로 논의했거나 추가로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결과 공고 전까지 보완을 해서 안건 내용을 좀 더 보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학생회장 강동재: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현: 보고안건 제3호와 관련하여 질문이나 의견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한정현: 추가적인 질문이나 의견 없으면 보고안건 제3호 중앙운영위원회 산하위원회 운영 보고를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장 한정현: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안건 제3호를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4. 보고안건 제4호 의결기구 간사 선임 보고

○의장 한정현: 보고안건 제4호 의결기구 간사 선임 보고입니다. 2023년도 1월 정기 중앙운영위원회에 올라왔던 안건하고 동일한 내용이고요. 마찬가지로 간사 선임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상정근거는 학생회칙 제56조제6호입니다. 학생회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가 본회 산하기구의 사업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의결기구 간사는 본회 의결기구, 중앙운영위원회 전학대회에서 의사결정 과정 중 중요한 사무를 처리하는 직책을 말합니다.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의결기구 사무처리는 의결기구를 구성하는 본회 대표자, 즉 소속 회원의 합의를 통해 선출된 대표가 담당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 제도를 벤치마킹한 본회의 의결기구 간사 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전반기 간사를 선임하여 관련 제도를 운영하였고, 기존에 보고된 바와 같이 7월부터는 하반기 간사를 선임하여 새롭게 임기를 개시하고자 합니다. 중앙운영위원 중 1인이 본회의 의결기구 간사를 맡으며, 회의를 진행하는 의장과 회의에 참여하는 구성원 사이의 의사를 조율하고, 중요한 사무처리를 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7월 3일부터 같은 달 5일까지 중앙운영위원회를 대상으로 간사를 모집하였고, 지원 결과에 따라 윤서진 산업디자인학과 학생회장이 2023년도 하반기 의결기구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붙임 자료를 통해 의결기구, 간사 제도, 운영 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월 달에 보고된 내용과 거의 동일하고 추가된 내용만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1차 간사 제도 피드백 회의를 2월 29일에 진행하여, 해당 내용을 반영해서 하반기 간사 제도 운영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논의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사 제도의 명문화나 권한에 대한 내용이 기존 1월에 보고드린 내용에서 좀 더 구체화 되거나,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한 부분이 있는데, 주된 내용은 단순히 의결기구운영세칙이나 학생회칙의 간사 조항과 간사가 어떤 업무를 수행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한다는 것에서, 명확하게 명문화한다는 것에서, 간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등 간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규정적 근거 정도를 마련하는 수준으로 명문화 계획이 그 가능성 면에서 수정된 바 있습니다. 해당 내용 이외에 붙임 자료의 경우에는 1월 정기 중앙운영위원회 보고한 간사들도 운영 계획안과 거의 동일하며 또 간사 하반기 간사 모집 기간 중에 해당 내용을 중앙운영위원 여러분께 공유드린 바 있습니다. 보고안건

제4호 의결기구 간사 선임 보고와 관련하여 질문의 의견을 받겠습니다.

○의장 한정현: 별도로 질문이나 의견 없으시면 보고안건 제4호 의결기구 간사 선임 보고를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장 한정현: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안건 제4호 의결기구 간사 선임 보고를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의장 한정현: 윤서진 간사께서는 앞으로의 회의 운영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며 중앙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관련 업무를 맡아주심에 감사드리고 향후 업무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고,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월에도 똑같이 진행했었는데, 같은 플롯으로 진행했었는데, 보고안건 제4호 의결에 따라 간사 임기는 선임 이후로 개시가 되었고 간사 관련 내용 보고안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이에 따라 선임 간사님의 소견을 한 1분 내외로 간략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가능하십니까?

○간사 윤서진: 하반기 간사 임기 동안 열심히 해서 중앙운영위원회와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준비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현: 네 감사합니다.

5. 보고안건 제5호 신소재공학과 과대표 사퇴 보고

○의장 한정현: 보고안건 제5호입니다. 보고안건 제5호 신소재공학과 과대표 사퇴 보고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상정근거는 학생회칙 제56조제6호입니다. 학생회칙 제101조제3항제1호에 따라 자치기구에서 자치기구회장단 등 선출직의 선출·탄핵·사퇴의 사항이 발생하여 이를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이창섭: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이창섭입니다. 신소재공학과 2학년 과대표 엄석주 학우가 군입대를 사유로 2023년 7월 1일 사퇴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소재공학과 과대표 사퇴 보고와 관련하여 질문이나 의견 받겠습니다. 전산학부에서 Zoom 채팅으로 보궐선거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였는데 관련해서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이창섭: 신소재공학과는 회칙상 궐위 상태가 발생하면 재선거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궐선거는 없고 재선거가 아무런 제약 없이 무한히 진행될 수 있는 회칙상 구조인데 그래서 현재 재선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후보 등록 기간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현: 네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소재 과대표 혹은 부과대표에 관한 지금 재선거 내지는 보궐선거 시행 공고가 신소재공학과 학우들에게 안내가 나간 상황인 건가요?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이창섭: 네 지금 신소재공학과 22학번, 그러니까 과대표는 선거권과 비선거권이 모두 22학번에만 있기 때문에 22학번들이 모여 있는 방에만 권고가 나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현: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차후에 중앙운영위원회 보고안건으로 결국 올라와야 되니 구체적인 일정을 조금 알면은 의사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간략하게 일정을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현재 신소재공학과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보궐선거 시행 공고에 보궐선거 시행에 관해서 간략한 일정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한정현: Zoom 채팅으로 공유해주셨고요. 8월 4일까지 후보 등록을 받아서 선거를 진행을 하고 8월 11일에 과대표 당선자까지 공고하는 것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보고안건 제5호 신소재공학과 과대표 사퇴 보고와 관련하여 질문이나 의견 더 받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의 의견 없으시면 보고안건 제5호 신소재공학과 과대표 사퇴 보고를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장 한정현: 네 이의가 없으므로 신소재공학과 과대표 사퇴 보고를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6. 보고안건 제6호 학생문화공간위원회 부위원장 사퇴 보고

○의장 한정현: 보고안건 제6호 학생문화공간위원회 부위원장 사퇴 보고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상정근거는 학생 회칙 제56조제6호입니다. 학생회칙 제58조제2항 및 제91조제3항에 따라 상설위원회 위원장단의 사퇴를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부터는 참관한 학생문화공간위원회 담당자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학생문화공간위원회 사업국원 이진우: 안녕하세요. 학생문화공간위원회 부위원장 당선인 이진우입니다. 저희 학생문화공간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서태현 학우가 해당 사유로 사퇴함에 따라서 해당 안건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참고 사항은 아래 관련된 저희 자치규정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래 붙임으로 결과 첨부하였습니다.

○의장 한정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해 주신 내용과 같이 사퇴 의결 확인 내용을 붙임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월 21일에 개최된 제14차 전체회의에서 서태현 부위원장의 사퇴 의결을 하였고 이에 의결이 가결됨에 따라 부위원장직에서 사퇴하였습니다. 해당 사항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의장 한정현: 보고안건 제6호 학생문화공간위원회 부위원장 사퇴 보고와 관련하여 질문이나 의견을 받겠습니다. 별도로 질문이나 의견 없으시면 보고안건 제6호 학생 문화 공간 위원회 부위원장 사퇴 보고를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장 한정현: 네 이의가 없으므로 학생문화공간위원회 부위원장 사퇴 보고를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7. 보고안건 제7호 학생문화공간위원회 부위원장 내부호선 보고

○의장 한정현: 보고안건 제7호 학생문화공간위원회 부위원장 내부호선 보고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니다. 안건상정근거는 학생회칙 제56조제6호입니다. 제안이유는 학생회칙 제90조에 따라 학생문화공간위원회 부위원장 내부호선 결과를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부터는 학생문화공간위원회 담당자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학생문화공간위원회 사업국원 이진우: 네 학생문화공간위원회 부위원장 당선인 이진우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보고안건의 결과 서태현 부위원장이 사퇴함에 따라서 부위원장 자리가 공석이 되었고 원래 사업국원이었던 제가 단일 출마하여 선출되었습니다. 그래서 호선 관련된 결과랑 반대 사유는 아래 첨부한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잘 설명해 주신 내용과 같이 서태현 부위원장이 사퇴함에 따라 이진우 사업국원이 부위원장 단일 출마하여 부위원장으로 내부호선 되었습니다. 내부호선 결과 확인은 보시는 붙임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전체 회의에서 제14차 전체회의에서 이진우 사업국원을 부위원장으로 내부호선하였습니다. 보고안건 제7호에 관하여 질문이나 의견을 받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의견 없으시면 보고안건 제7호 학생문화공간위원회 부위원장 내부호선 보고를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장 한정현: 네 이의가 없으므로 학생문화공간위원회 부위원장 내부호선 보고를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사전에 전학대회 대의원들께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내부호선 보고가 접수됨에 따라 차회 전학대회에서 부위원장 인준안을 안건으로 부여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심의안건 제1호 VOK 2023년도 상반기 추가경정예산 심의안

○의장 한정현: 심의안건입니다. 심의안건 제1호 VOK 2023년도 상반기 추가경정 예산 심의안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상정근거는 학생회칙 제

56조제6호입니다. 제안 이유는 부득이한 사유로 기 심의의결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하여 학생회칙 제170조에 따라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부터는 VOK 국장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VOK 국장 김선호: 안녕하세요. VOK 국장 김선호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VOK에서는 9월 말에 열리는 2023 POSTECH-KAIST 학생대제전의 경기 진행 및 중계를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당 행사에 장비 연구 및 리허설 등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9월 전에 구매해야 하나 전학대회나 중운위 등의 회의 개최 일정을 고려하였을 때 설명드린 집행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더하여 수입 부분에서는 참가비 확정 이자 입금 지출 규모 변경 등의 요인으로 변경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2023 POSTECH-KAIST 학생 제전과 관련한 추가경정예산 지출의 규모는 365만 원이고 세부 구매 내역을 화면 공유를 통해서 공유해 드릴 수 있으니 필요 시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지난 7월 14일에 중앙회계소위원회 심의 검토가 완료된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수정된 내용에 대해서도 중앙회계소위원회에 심의-검토를 요청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검토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아서 우선은 직권으로 회의에 상정하였고 기존 소위원회에서 심의-검토하여 제공한 의견에 대해서는 충실히 반영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관해서 해당 소위원회 위원장께 간단한 심의 결과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필요할 경우에 지난 소위원회 검토 보고서를 화면으로 송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회계소위원회 위원장 오윤석: 검토 보고서 송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한정현: 해당 내용 공유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중앙회계소위원회 위원장 오윤석: 하단으로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로 501번에 경우 변동 폭이 적어서 추가경정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았고 502번의 경우 식사비 등록 증액은 당위성을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감사매뉴얼상의 1인당 식사비의 2배 이므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500번대 예산 분류는 운영 및 정기 사업비 비정기 사업비 순으로 쓰는 것을 권장하였습니다. 또한 601번, 602번, 603번의 경우 공통적으로 예산 편성의 이유가 없었으며 전년도 결산만으로는 예산 편성의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전체적으로 상반기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예산을 추가경정으로 큰 변화를 가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다는 것으로 결론내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현: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제출된 안건 심의·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붙임1과 붙임2를 통해 VOK 2023년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안과 이를 반영한 전체 예산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추가 설명을 드리면, 말씀해 주신 내용들 증액 규모가 적어서 추경이 필요 없는 항목, 그리고 식사비 등 일정 부분 많은 지출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모두 수정하고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화면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당장의 사업에 필요한 물품비에 대해서만 증액한 것으로 안건의 내용을 소위원회 검토 의견에 따라 수정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수리과학과 학생회장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수리과학과 학생회장 박재익: 네 안녕하세요. 안건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링크가 제15회 중앙운영위원회의 링크인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접속을 해본 결과 안건지가 전 회로 업로드가 되어있는 것 같아서요. 그 부분 먼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의장 한정현: 네 그 부분은 서기님께서 확인해 주셔서 반영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건에 대한 질문은 아니신 건가요?

○수리과학과 학생회장 박재익: 엄밀히 따지면 이제 안건에 대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안건지를 확인하지 못하여서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

습니다.

○의장 한정현: 네 ARA에서도 안건 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건 내용 확인하시는 동안에 추가적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께서 확인해 주신 결과 ARA에는 정상적으로 업로드 되어서 해당 내용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카이위키의 경우에는 저희가 해당 내용 확인 후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내용 확인하시고 질의응답하는 시간 3분 더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서기께서는 카이위키에서도 해당 내용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기께서 카이위키에도 조치해 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ARA 또는 카이위키에서 모두 동일한 내용의 안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화면에 지금 스트리밍이 뜨는데 한번 송출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재정사무국장님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확인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현: 심의안건 제1호 VOK 2023년 상반기 추가경정예산 심의안 관련하여 말씀드린 검토 및 질의 응답 시간 지났는데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질문 없으시면 심의안건 제1호에 대한 표결을 개시하고자 하는데 표결로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의장 한정현: 네 별도로 의견 없으시면 심의안건 제1호에 관한 표결을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운영위원회에서는 사전에 배부드린 전자투표 링크로 접속하여 심의안건 제1호에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재적인원 21명 중 13명 재석하였고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심의안건 제1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에 따라 VOK 2023년도 상반기 추가경정예산 심의안은 원안대로 심의·의결되었습니다. VOK 국장께서는 안건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퇴실하셔도 괜찮습니다.

9. 심의안건 제2호 동아리연합회 2023년도 상반기 추가경정예산 심의안

○의장 한정현: 심의안건 제2호 동아리연합회 2023년도 상반기 추가경정예산 심의안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상정근거는 학생회칙 제56조제6호입니다. 제안이유는 부득이한 사유로 기 심의의결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하여 학생회칙 제170조에 따라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심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동아리연합회장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동아리연합회장 오윤석: 네 안녕하세요. 동아리연합회장입니다. 여름학기 동안의 의결 기구를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네 추가경정예산 발의하였습니다.

○의장 한정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불임1을 통해 동아리연합회 2023년도 상반기 추가경정 예산안을 불임1을 통해 추가경정 예산이 반영된 전체 예산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7월 14일에 개최된 중앙회계소위원회에서 심의 검토 완료하여 심의 검토 결과를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수정된 내용으로도 회부하였는데 마찬가지로 이유로 개최 되지 않아서 우선은 안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직권으로 상정했습니다. 이 역시도 처음 심의 검토 결과를 보고받은 내용이 충실히 반영되었다라고 보이고요. 중앙회계소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의안건 제1호와 마찬가지로 심의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화면으로 검토 보고서 송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소위원회 위원장께서는 검토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회계소위원회 위원장 오윤석: 네 과거에 예산안 시트가 없었고 여름 기간 동안에 회의를 예정임이 안건 내용들 반영하여 추가되면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이 나왔고요. 그리고 교통비의 경우 분류가 회의비가 아니라 출장비임을 수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의장 한정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바와 같이 해당 내용들을 반영하여 수정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동아리연합회 2023년도 상반기 추가경정예산 심의안과 관련하여 질문이나 의견 받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검토 및 질의응답 시간 3분 드리겠습니다.

○의장 한정현: 말씀드린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추

가적인 질문이나 의견을 받겠습니다. 네 별도로 질문이나 의견 없으시면 심의안건 제2호의 표결을 개시하고자 하는데 표결로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의장 한정현: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안건 제2호의 표결을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운영위원회께서는 배부드린 전자투표 링크로 접속하여 심의안건 제2호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현: 투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재석 17명 중 찬성 1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심의안건 제2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에 따라 동아리연합회 2023년도 상반기 추가경정예산 심의안은 원안대로 심의의결되었습니다.

10. 심의안건 제3호 뇌인지과학과 학생회 설립 인준안 발의안

○의장 한정현: 다음은 심의안건 제3호입니다. 심의안건 제3호 뇌인지과학과 학생회 설립 인준안 발의안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상정근거는 학생회칙 제56조제6호이며, 제안이유로서 학생회칙 제42조가 제안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학생회칙 제42조에 따라 신규 학부 학과 학생회 설립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인준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한 발의안이 본 심의안건 제3호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부터는 뇌인지과학과 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 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해당 내용을 전학대회에서도 동일하게 다룰 것이기 때문에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또한 여기 나와있는 별첨 자료들은 ARA에 알집 파일로 파일을 압축해서 첨부해 놓았습니다. 카이위키가 압축 파일은 업로드가 안 되어서 ARA에 공고해 두었고 해당 내용은 필요 시 채팅으로 공유드려서 용이하게 안건 내용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재경 위원장께 주요내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뇌인지과학과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 위원장 이재경: 네 안녕하세요. 뇌인지과학과 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

위원장 이재경입니다. 우선 뇌인지과학과 학생회설립 준비위원회 설립근거는 학생회칙 제104조에 따라 각 학부 학과 학생들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집행을 위한 학생 자치기구로서의 학부 학과 학생회 설립을 위해서입니다.

설립 과정은 2023년 5월 15일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설준위가 설치되었고 이후 설치한 심의의결 등에 대한 회의는 하지 않았지만 학생회칙 초안 작성 등에 대한 제반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 6시 대면 회의 및 비대면 회의를 진행하였고 설립준비위원회에서 작성한 내용으로는 안전지 뇌인지과학과 학생회칙 뇌인지과학과 학생의 사업계획서와 학생회 예산안 등이 있습니다.

자치규칙의 경우 학생회의 목적과 회원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였고 뇌인지과학과 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 운영부에서 회의를 통해 작성하였으며 다른 학과 학생회 자치 규칙을 참고해서 완성했습니다. 초안 완성은 5월 1일 완성되었으며 이후 5월 14일, 5월 19일 그리고 2023년 5월 28일까지 피드백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자치규칙 의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과 같은 경우 사업계획은 3분기에 진행하는 사업이 전부였기 때문에 3분기와 하반기에 사업계획서 내용을 동일하게 작성하였고 세부 사항으로는 뇌인지과학과 전공 과목 수강평 이벤트, 시험기간 간식 이벤트, 친목조, 그룹스터디 전공서적 대여, 워크샵으로 총 6개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산안과 같은 경우에는 수입은 비슷한 인원수의 타학과와 비교하여 학생회비 항목을 작성했고 학과 단체 특방을 이용한 투표로 가결정된 과비와 추가적인 예상 비용을 더해 자치 항목을 작성했습니다. 지출의 경우에는 친목조, 그룹 스터디, 전공 서적의 대여는 학생회비로 진행을 할 것이고 시험기간 간식 이벤트와 뇌인지과학과 전공과목 수강평 이벤트, 워크샵은 자치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후 아까 말씀해 주신 이후 별첨 자료랑 붙임 자료는 따로 알집 파일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현: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붙임 자료로 뇌인지과학과 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에서 의결한 뇌인지과학과 학생회칙 뇌인지과학과 학생회 자치규칙의 의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참고사항으로서 6월 26일자로 기존에 제출했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서류 그리고 자치규칙 초안 그리고 안전지 내용에 대해서 인준소위원회 심의 검토 결과를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준소위원회 검토 이후에 해당 내용들이 모두 충실히 반영되어서 이 부분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전학대회로 한 번 발의를 해야 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소위원회로 재회부하지 않았고 오늘 회의에서 소위원회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함께 심의 검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지난 소위원회 심의결과 검토결과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으로 해당 검토보고서 송출하고 있습니다.

○인준소위원회 위원장 홍의상: 인준소위원회 위원장 홍의상입니다. 뇌인지과학과 학생회는 학생회칙에 명시된 본회 차원의 지속적인 사업이 필요한 사안을 담당하는 기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기에 준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 업무인 학생회 설립 인준안, 자치규칙,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작성이 학생회 설립을 준비하는 준비위원회의 취지에 적합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내용은 설치안에 대한 심의 검토 결과 보고이고요. 이를 바탕으로 설치되어서 자치 규칙이나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에 대해서도 제안 설명된 바와 같이 보고를 해주셨고 설립 인준안에 대해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신 바가 있는데 이 내용도 함께 화면으로 공유드리면서 간단하게 검토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준소위원회 위원장 홍의상: 혹시 검토 보고서 화면에 띄워주실 수 있나요?

○의장 한정현: 네네 화면 송출 지연되고 있는데 화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략하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준소위원회 위원장 홍의상: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인지과학과 학생회의 설립에 필요한 서류인 뇌인지과학과 학생회 설립 인준안, 사업 계획서, 예산안, 지치규칙을 잘 준비하였고 인준안, 사업계획서, 예산안에서 담당자 이름 기입 등 양식이 완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이를 질문드렸고 예산안을 보면 워크샵에 대한 지출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사업계획서와 인준안의 부분에 이에 대한 내용 추가가 필요해 보인다고 검토를 하였고요. 예산안의 과비 항목에서 예산 산정 근거의 예산과 실제 기입된 예산이 달라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현: 관련 안건 검토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뇌인지과학과 학생회 설립 인준안에 관하여 인준소위원회 검토 심의 검토 결과를 보고받았고 그 내용을 포함하여 해당 내용들이 현재 제출된 안건에 잘 반영되었는지 함께 심의 검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제5회 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수정하면서 의결하는 과정에서 소위원회 검토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또한 확인되었습니다. 심의안건 제3호 뇌인지과학과 학생회 설립 인준안 발의안에 대해서 검토 시간 2분 정도 드리고 질의응답도 그동안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학생회장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총학생회장 강동재: 총학생회장 강동재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치규칙 의결 확인은 붙임 파일로서 이 바로 뒤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요. 그다음 뇌인지과학과 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 회의록은 별첨1이라고 작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별도 첨부된 파일이 안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학생회칙이 두 개가 있는 걸로 보이고 이 두 가지가 동일한 파일로 보이는데 혹시 이게 잘못 업로드 되어있는건지 아니면 제가 못 찾고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장 한정현: 네 이 부분은 안건 서식상의 오류인 것 같은데요. 인준안 발의안에는 회의록이 심의 대상은 아니어서 포함되지 않는데 인준안을 의결할 때 준비위원회 활동 내용을 함께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때는 필요한데 현재 발의안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별첨 파일에는 없는 것이 맞는데 이 부분은 서식상의 오류인 것으로 보입니다.

○총학생회장 강동재: 네 그럼 별도 첨부가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 맞죠?

○의장 한정현: 원래 별도 첨부하지 않는 내용인데 서식상의 오류로 인해서 저렇게 별첨1로 표기된 부분으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내용대로 압축 파일에 없는 것이 맞습니다.

○총학생회장 강동재: 네 그리고 여기 학생회칙이 두 개 있는데 이걸 동일한 파일이 맞고 그래서 하나만 봐도 된다. 이 내용도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의장 한정현: 네 동일한 파일이 맞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총학생회장 강동재: 네 그러면 타질문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현: 네 확인 감사합니다. 총학생회장님께서 혹시 추가 발언 요청하신 걸까요?

○총학생회장 강동재: 아닙니다.

○의장 한정현: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의견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 의견 없으시면 심의안건 제3호에 표결을 개시하고자 하는데 표결로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의장 한정현: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운영위원회께서는 배부된 전자투표 링크로 접속하여 심의안건 제3호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현: 심의안건 제3호의 투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재석 17명 중 찬성 17명 반대 5명 기권 0명으로 심의안건 제3호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에 따라 뇌인지공학과 학생회 설립 인준안 발의안은 원안대로 심의의결되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14일 이내에 전학대회를 소집해서 해당 안건을 심의·의결하여야 하고 기존의 정기회의가 차주 월요일에 개최 예정이기 때문에 해당 회의에 부의하여 뇌인지학과 학생회 설립 인준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심의안건 제3호 마치겠습니다. 뇌인지과 학과 학생회 설립준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안건 준비해 주시고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괜찮습니다.

11. 심의안건 제4호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 설립 인준안 발의안

○의장 한정현: 심의안건 제4호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 설립 인준안 발의안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상정근거는 학생회칙 제56조제6호이며, 제안이유는 학생회칙 제42조에 따라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 설립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인준하기 위함입니다. 본 안건 역시 그에 대한 발의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부터는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 위원장 권한대행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 위원장 권한대행 김민준: 네 의장님 지금 화면이 안 올라와서 그런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 부위원장 겸 위원장 권한대행 김민준입니다.

네 먼저 설립 근거는 학생회 제104조에 따라 반도체시스템 공학과 학생들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집행을 위한 학생 자치구로서 반도체 학생,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 학생의 설립을 위해 활동하였습니다.

설립 과정은 일단 5월 29일날 중앙운영위원회 인준과 함께 일반위원 9명, 자문위원 4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였고요.

이후 운영부와 기획부로 들어서 각각의 부서에서 운영부에서 학생회칙 초안을 작성하였고 기획부에서 이제 예산안과 하반기 및 3분기 기획안과 예산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성된 각각의 안들을 6월 29일 날 일단 의결하였고요, 그 다음에 수정을 반영하여서 7월 22일 최종적으로 하반기 및 3분기 사업 계획서 예산을 의결하였으며, 이때 이제 저희가 다시 통

보 받은 학생회칙 개정 소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서 학생회칙을 보다 수정하여서 23일 내 서면 결의로 의결하였고, 이제 이 사항들을 반영하고 반영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 논의를 거친 뒤 7월 31일에 열리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상정하여서 학생회 설립 인준을 받을 예정입니다.

간략하게 자치규칙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일단은 저희가 이제 본회 회원의 자격을 주전공인자로 하고 별도의 학생회비 납부 의무를 주지 않았으며 저희 과가 부전공이 없는 특성을 반영하여서 정확히는 회원 외에 준회원 자격을 명시하지 않는 식으로 학생회를 바꾸었으며, 또 다른 이제 화학과와 전기및전자공학부 학생회 자치규칙을 참고하여서 초안을 작성하였고 이후 이제 중앙집행위원회 사무국 및 회칙개정소위원회 분들의 피드백을 반영하여서 수정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수정 사항으로는 이제 초대 선거에 관해서 선거 준비를 이제 저희 준비위원회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그 다음에 초대 선거에 관해서 1년 6개월 정도 학생회장단이 임기를 하는 것으로 이제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이제 비상학생총회라든지 학생총회에 상정 비율을 계산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계획으로는 네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학생회칙을 완료하였고요.

네 사업 계획은 대표적으로 이제 학과 파티, 과잠 공모를 진행하고자 하고 있으며 그 다음 학과장이 과잠을 구매하고 이걸 학생들이 나눠주는 과정과 이제 디자이너를 위한 공모전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제 중간기말 간식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산안 역시 이에 맞춰서 작성하였으며 파티 과잠 공모전에서 학생들로부터 거두는 금액 같은 경우에는 자치회계에 작성하였으며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제 워크숍을 진행할 계획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본회계에서 전액을 지원하기로 하여서 일단은 미 작성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작성 필요할 경우 이제 정식으로 하반기 사업 계획서 논의하는 과정에 올릴 예정입니다.

네 필요하신 사항들은 이제 별첨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 붙임으로 자치규칙을

서면 의결한 사항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해주신 바와 같이 보충 자료를 통해 자치 규칙 의결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제공해드린 별첨자료를 통해 자치 규칙이나 사업 계획서, 예산안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선 안건과 마찬가지로 발의안에 심의 대상에 회의록은 포함되지 아니하나 서식상의 오류로 별첨 1로 표기된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는 회칙개정 소위원회로부터 해당 자치규칙에 검토를 요청하여 검토 보고를 받은 바 있는데 해당 내용에 대해서도 간략히 심의 검토 결과를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칙개정 소위원회 위원장께서 관련 내용 보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으로 보고서 함께 송출 드리겠습니다. 해당 내용들이 적절히 충실히 반영되어 자치 규칙을 의결한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주된 내용들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칙개정소위원회 위원장 이창섭: 네 제가 지금 보고하는 건가요?

○의장 한정현: 네네

○회칙개정소위원회 위원장 이창섭: 네 보고사항에 이제 개선해야 될 사항들만 직접적으로 적어 놨는데요. 이제 전체적으로 제#조 제#조 이런 식으로 기술해야 된다는 거 여러 가지 틀린 점 많아서 지적했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다른 동아리들과 다르게 이제 회비 납부 안 해도 선거권, 피선거권이 생길 수 있는데 좀 이상해서 의도한 것이 맞는지 고려해 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네 탄핵 안건이 좀 이상해서요. 운영위원회에서 부학생회장 탄핵 안건 심의할 수 없는 점 이런 것도 좀 이상한 것들 몇 가지 지적했고 그 다음 몇가지 표현 좀 지적했고요. 등등 전체적으로 이게 부학생회장이 없는.. 어디였죠? 전기및전자공학부였나요? 이제 부학생회장이 없는 과의 회칙을 참고해서 만들다 보니까 부학생회장의 의무와 권리 그 다음에 선출 방법 및 역할 등등에 대한 게 많이 빠져 있어서 그걸 중점적으로 지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의장 한정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

들 자치규칙 수정하여 의결하는 과정에서 모두 반영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런 내용들도 모두 포함해서 심의안건 제4호를 심의 검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검토 및 질의응답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안건 내용에 살짝 오기입이 있는데 보시는 사업 계획서가 이제 하반기 3분기 하나씩 있고요, 예산안이 마찬가지로 대응되게 하반기 3분기가 있는데 여기 사업계획서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 양자 검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분기와 하반기에 대해 각각 예산안 하나씩 사업 계획서 하나씩 해서 총 사업 계획서 2개 예산안 2개입니다. 별첨 파일에도 동일하게 첨부되어 있습니다. 단순 오기입이라 전학대회로 안건 발의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 정정하고 회의록에 해당 내용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 위원장 권한대행 김민준: 혹시 소위원회 검토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려도 될까요?

○의장 한정현: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 그러면 제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 위원장 권한대행 김민준: 네 부회장에 관해서 고지한 문제는 회장단으로 기소를 변경함으로써 해결을 하였고 피선거권과 선거권에 관해서는 이제 학생회비 납부 없이도 가능하도록 원래 의도하여서 해당으로 처리하였으며 문구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수정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현: 네 말씀해 주신 내용과 같이 큰 틀에서 체계 및 자구를 정비하는 부분들 면밀하게 검토가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회비 납부에 관하여서도 준비위원회 내부의 논의를 거쳐서 회비 납부에 따른 학생활동 참여나 선거권, 피선거권에 대해서 규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부학생회장에 관하여서도 회장 학생 회장단이나 선거까지 포함해서 준비위원회 내부에서 논의 과정이 있었고 그를 통해 학생 회장단으로 두고 또 러닝메이트로 출마하도록 하였으며, 학생회장단 탄핵안이나 과대표단 탄핵안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규정하여 둘 중 한 명만 탄핵안이 발의가 되

어도 둘 다 직무가 정지되는 등 관련 내용들을 정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 설립 인준안 발의안에 관해서 질문이나 의견 받겠습니다. 네 별도로 질문이나 의견 없으시면 심의안건 제4호에 표결을 개시하고자 하는 걸로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의장 한정현: 네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안건 제4호 표결을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운영위원회에서는 배부드린 전자투표 링크로 접속하여 심의안건 제4호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현: 투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재석 15명 중 찬성 1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심의안건 제4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 설립 인준안 발의안은 원안대로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앞선 안건과 동일하게 14일 이내에 전학대회를 소집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차주 월요일에 예정인 전학대회 정기회의에서 해당 안건 부의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내용들은 24일 날 26일에 공고 예정인 소집공고에서도 동일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 위원장 권한대행께서는 안건 작성해주시고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괜찮습니다.

12. 인준안건 제1호 중앙집행위원회 국서 체계 동의안

○의장 한정현: 네 다음은 인준안건입니다. 인준안건 제1호 중앙집행위원회 국서 체계 동의안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상정근거는 학생회칙 제56조제6호입니다. 제안 이유는 학생회칙 제79조제2항에 따라 총학생회장이 국서 체계를 정하고 중앙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4대 학부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KIND?>의 국서로 집행지원국, 정책복지국, 재정사무국, 문화기획국 국제사무국, 미디어홍보국을 둡니다. 변경된 내

용은 기존 국서 5개에서 미디어홍보국이 하나 추가되어 6개로 변경되었습니다. 운영요령도 함께 보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변경된 부분이 없고 미디어홍보국 내용 추가되었습니다. 보시는 중앙집행위원회 운영 요령에서 미디어홍보국 내용 추가되었습니다. 국서 구성에 관하여서도 일부 인원 변동을 반영하여 국서 구성이 변경되었으며 새로 추가된 미디어홍보국 외의 구성원에 대해서도 함께 참고해 놓았습니다. 이어서 총학생회장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총학생회장 강동재: 네 총학생회장 강동재입니다. 방금 부총학생회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미디어홍보국을 추가하는 국서 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게 이번 국서 체계 동의안의 골자이고요,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자면 여기 국서 구성에서 지금 집행지원국원으로 김하민 국원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 실수에 의한 것으로 우리 국서 체계 동의안에는 이번 이안건을 통해서 미디어홍보국을 신설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한정현: 네 인준안건 제1호와 관련해 질문이나 의견 받겠습니다. 별도로 질문의 의견 없으시면 인준안건 제1호에 표결을 개시하고자 하는데, 표결로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의장 한정현: 이의가 없으므로 인준안건 제1호에 표결을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운영위원회에서는 배부드린 전자투표 링크로 접속하여 인준안건 제1호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현: 투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인준안건 제1호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에 따라 중앙집행위원회 국서 체계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13. 인준안건 제2호 중앙집행위원회 국장 임명 동의안

○의장 한정현: 인준안건 제2호 중앙집행위원회 국장 임명 동의안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상 정근거는 학생회칙 제56조제6호입니다. 제안이유는 학생회칙 제58조제1항 및 제79조제4항에 따라 총학생회장단이 각 국서의 국장을 임명하고 중앙운영위원회의 동의로 업무를 개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디어홍보국장으로서 정구용 학우를 임명하고자 하고 이에 대한 임명 동의안 의결을 요청 드립니다. 인준안건 제2호에 관해서 질문이나 의견을 받겠습니다.

○의장 한정현: 네 별도로 질문이나 의견 없으시면 인준안건 제2호에 표결을 개시하고자 하는데, 네 발언권 요청하셔서 총학생회장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총학생회장 강동재: 네 앞선 인준안건 1호에 있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미디어홍보국을 신설하고 국장님을 미디어홍보국장으로서 임명하고자 하는 데에는 봄 학기 활동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대학우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피드백을 바탕으로 더 나은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제때 그리고 학생분들께 정확히 학부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의 활동을 안내해야 한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와 같이 중앙집행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여러 요소들을 고려해서 국서 운영 등을 고민하여 결정한 후에 변동 사항이 있다면 지금처럼 인준안건을 통해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한정현: 네 추가 설명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과 같이 중앙집행위원회 국서 체계나 국장 운영 등의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해당 내용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별도로 질문이나 의견 없으시면 인준안건 제2호에 표결을 개시하고자 하는데 표결로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의장 한정현: 네, 별도로 이의가 없으므로 인준안건 제2호 표결을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드린 전자투표 링크로 접속하여 인준안건 제2호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현: 투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인준안건 제2호 재석 14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에 따라 중앙집행위원회 국장 임명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기권 사유 받겠습니다. 전산학부에서는 기권 사유 말씀해 주시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산학부에서 기권 사유 미기재로 Zoom 채팅 남겨주었습니다. 제가 같은 얘기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것 같아서 짧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회의에 참여하실 때는 각 단위를 소속 학과를 대표해서 참석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찬성 13명에게 다 의견을 물어볼 수는 없으니 소수 의견을 존중하는 원칙에 따라 가결되었을 때에 반대, 기권 등의 소수 의견을, 반대 또는 기권 사유를 기재함으로써, 소수 의견을 남기고자 하는 것인데, 이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4. 논의안건 제1호 2023년도 하반기 학생회비 분배 비율 논의안

○의장 한정현: 네 다음 논의안건입니다. 논의안건 제1호 2023년도 하반기 학생회비 분배 비율 논의안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상정 근거는 학생회칙 제56조제6호입니다.

제안이유는 학생회칙 제45조 및 제166조에 따라 3분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다음 반기에 본회의 각 회계에 대한 분배 비율을 심의·의결하기 전에 다음 반기 학생 및 분배 비율에 관한 논의를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도 하반기 학생회비 분배 비율 제안안입니다. 다음과 같이 2023년도 하반기 학생회비 분배 비율을 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중앙회계 60%, 기층기구회계 20%, 격려기금 20%, 문화자치기금 0%입니다. 변동사항은 지난 2030년 상반기 분배 비율에서 문화자치기금의 비율을 5%에서 0%로 줄이고 중앙회계 비율을 55%에서 60%로 늘린 것이 되겠습니다.

학생회비 분배 비율에 따른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상 학생회비 금액이 5,800만 원 상당이고요. 정확히 설명을 드리면 2022년도 하반기 학생 및 납부자 수가 2650명 상당 2023년도 상반기 학생 납부자 수가 2950명 상당이어서 2023년도 하반기 학생회비 납부자 수를 대략 2800명으로 추산하였고 그에 따라 1인당 납부 금액인 20200원을 곱하여 대략 5,800만 원 정도로 추정하였습니다. 상기 분배 비율에 따라 5,800만 원을 분배할 경우에 중앙회계가 3400만 원 기층기구회계와 격려기금이 각각 1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자치기금 5%를 0%로 하고 중앙회계를 비율을 늘리고 또 학생회비 수입이 일부 증가함에 따라 각각에 대한 금액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안건은 논의안건이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전학대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올릴 기본적인 안건을 기본적인 안을 구성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주실수록 좀 더 활발한 회의가 될 수 있겠습니다. 논의안건 제1호에 관해서 질문이나 의견을 받겠습니다. 전산학부에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 네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입니다. 혹시 문화자치기금이 5% 감축되고 중앙회계가 5% 늘어나는 것으로 초안이 작성된 좀 더 구체적인 동기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의장 한정현: 네 크게 두가지 인데요. 한 가지는 2023년도 상반기 때 문화자치위원회에서 문화자치기금 275만 원을 사용하지 많아서 학생회비 기금의 중요도가 혹은 필요도가 감소되었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로는 전임 문화자치위원장인 오윤석 위원장과 문화자치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를 했었을 때 학생회비 기금과 학교 본회계 기금이 동시에 운용되는 것이 재정 운용상의 조금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여, 문화자치기금 학생회비 기금 275만 원이 감소되었을 때 실제로 학생들이 받아가는 금액이 줄어드는 양도 사실상 영향이 거의 없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운영상의 어

려움이 있어서 줄어드는 편익이 더 크기 때문에 275만 원을 5% 상당을 굳이 구하지 않더라도 운영상에 크게 어려움이 없겠다라고 의견을 전달받아서 이를 반영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첫째로는 그동안 상반기 때 지급했던 문화자치기금의 275만 원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고요, 두 번째로는 문화자치위원회 전임 위원장으로부터 회계 운영상에 있어서 275만 원이 없는 편이 좀 더 운영상에 용이한 면이 있다 라고 의견을 받아서입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의견 받겠습니다.

○의장 한정현: 네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께서도 본인도 문화자치위원이지만 문화자치기금 분배 비율을 0%로 하는 제안안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의견 주셨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이런 없으시면 논의안건 제1호 2023년도 하반기 학생회비 분배 비율 논의안에 관하여 원안의 내용대로 2023년도 하반기 학생회비 분배 비율 심의안을 구성하고 전학대회로 발의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정리하고자 하는데 의견이나 이의가 있으실까요?

네 별도로 이의나 의견 없으시다면 말씀드린 내용대로 논의안건 제1호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 논의안건 제2호 번역평가제도 개편 논의안

○의장 한정현: 논의안건 제2호 번역평가제도 개편 논의안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상정 근거는 학생회칙 제56조제6호입니다. 제안 이유는 학생회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가 오늘 산하기구의 사업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해당 내용은 제2023-5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보고사항으로 다뤄진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이 많아 보일 수 있는데요, 제2023-5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보고사항으로 간사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과 동일합니다. 시간 등을 고려하여 간략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번역 모니터링 대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회를 포함하는가 여부입니다. 당시 제2023-3회 전체 학생대표자회의에서 2022년도 하반기 번역평가보고서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대의원 의견으로, 현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회가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 국제학우도 선거권을 가짐으로 포함시켜서 모니터링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의견을 주셨고, 소통국제화위원회의 답변으로는, 번역 서비스는 제공하고 있으나, 번역 평가 보고서의 목적 중 하나인 기층기구 회계 분배 시 점수에 반영되지 않는 단체이기도 하고, 연속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단체이므로, 이것에 대한 후대 활동의 영향에 대해서 우려가 되어 된다 라고 의견 주셨고, 이에 관해서는 전학대회나 중앙운영위원회 의견에 따라서 그 결과를 수용할 의향이 있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산하기구 공식 소통 매체에 관한 능동적인 조사 파악입니다. 당시 전학대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대의원 의견으로는, 소통국제화위원회에서 산하기구의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공식 소통 매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능동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식 소통 매체가 최신화 되지 않을 경우에 유효한 번역 점수 집계가 불가능하며, 실제 활성화된 소통 매체와 다르게 공식 소통 매체를 임의로 지정하여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었는데, 이에 관해서 소통국제화위원회에 주도적으로 공식 소통 매체를 파악하고 쇄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통국제화위원회에서는 현재 매 학기 초, 봄학기, 가을학기 초에 공지 통방을 통해 모든 단체에 미리 기재된 공식 소통 매체에서 변경 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있으며, 보고서 작성 시 사용률이 저조한 것 같은 단체 또는 일부 단체가 다른 매체를 사용하고 있음에 대해 이미 인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식 매체 사용률이 다른 매체보다 저조한 단체 등에 대해서는 종종 개인 메시지 또는 공지 글을 통해 소통 매체 변경 여부를 파악하고 있으나, 제한된 문제 상황에 대해 인지하여 더 잦은 조사 혹은 또는 공지를 통해 이행률이 떨어지는 문제를 타기를 하고, 또 총학생의 도움을 통한 각 단체별 안내, 메일 발송 등의 방법에 대해서도 내부 논의할 예정이라고 6월 17일

자로 답변해 주셨습니다. 이에 추가적으로 논의하거나 이행된 바가 있는지는 아직 보고받은 내용은 없으며, 별도로 이행된 사항에 대해서 확인된 내용은 없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정기적으로 번역 양식을 안내해 주실 것을 대의원 의견으로 제안을 드렸는데, 이에 관해서는 현재 하고 있는 방식이 카카오톡 채팅방 상단 고정 공지에서 번역 양식 및 진행 방향에 대해서 기재된 문서를 게시함으로써 안내하고 있는 방식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잘 전달되지 않는 것 같다는 문제에 공감하며, 향후 새로운 인원이 카카오톡 채팅방에 추가될 경우 공지를 확실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전달하겠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정기적인 번역 양식에 대한 안내, 어떻게 안내하면 좋을지, 원하는 방향이 있을지 논의하였습니다.

네번째로 생활관자치회 번역 평가 및 번역 서비스 제공 여부입니다. 앞에 있는 번역 평가 같은 경우에는 학부 생활관자치회이고요, 번역 서비스 제공은 학부 및 대학원 모두 포함입니다. 대의원 의견은 번역 평가 보고서에 본회 산하기구가 아닌 학부 생활관자치회가 번역 평가 보고서의 기구 목록에 포함된 경위를 질의하였고, 이에 대해서 소통국제화위원회에서는 현재 학부생활관자치회의 SNS 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점, 관련 공지가 없는 점과 본회 산하기구가 아닌 문제로 보고서에 포함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던 기록이 있다고 하였고, 필요할 경우 보고서에서 바로 제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추가로 관련된 논의를 하나 더 요청한 것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생활관자치회에서 번역 서비스 제공을 요청할 경우에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할지 논의를 부탁하겠습니다. 소통국제화위원회가 학부 총학생회 산하 단체임은 명확하지만 번역 위원들의 경우 ISSS의 근로로 분류되어 번역비를 지원받으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학생회비가 전혀 투입되지 않고 운영되는 단체인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교내 모든 학생들이 언어의 장벽을 느끼지 않고 평등하게 교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통국제화위원회의 큰 이유 중 하나인 것이 두 번째 이유다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에 따라 논의 사항을 정리하면 첫째로 번역 모니터

링 대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포함 여부에 관하여 논의를 요청합니다. 이 부분은 O/X로 답변 가능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둘째로 산하기구의 공식 소통 매체에 관한 능동적인 조사 파악 방법에 관하여 논의를 요청드립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소통국제화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최소한 몇 개 이상의 게시글이 올라가는 매체를 지정해야 한다면 하는 세부적인 내용을 설정함으로써 논의를 이어 나갈 수 있겠습니다. 셋째로 추가적, 정기적 번역양식 안내에 대한 세부 사항에 관한 논의를 요청합니다. 안내 주기, 안내 방법, 안내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들이 주된 논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체로 생활관자치회의 번역 평가 및 번역 서비스 제공 여부에 관하여 논의를 요청드립니다. 이 역시도 O/X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이며, 번역 평가는 학부생활관자치회에 국한되는 내용이고, 번역 서비스 제공 여부에 관해서는 전체 학부·대학원 생자회에 모두 포함되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질문이나 의견 받겠습니다.

향후 타임라인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오늘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소통국제화위원회에 한번 1차적으로 전달을 드리고 소통국제화위원회에서 전학대회의 의견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대의원 대상으로도 메일로 안내를 드려서 관련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다만, 중앙운영위원회 회의에 부의한 이유는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하기구의 업무 등을 조정하고 논의하는 것은 중앙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이고 권한이기 때문에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부여해 논의하고자 하였고요. 전학대회 대의원들께 이메일을 통해서 서면을 전달받는 것도 충분히 transfer할 수 있기 때문에 소통국제위원회에 전달드릴 계획입니다. 해당 내용도 참고하시어 논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심의안건이 아니라 저희가 표결한다고 결정되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주셔야 안건을 정리하고 마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의견을 부탁을 드리며 우선 수리과학과에 먼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수리과학과 학생회장 박재익: 네 수리과학과 학생회장 박재익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 논의 사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번역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는가에 대한 제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생회칙에 보니까 소통국제화위원회의 업무랑 권한에 있어서는 본회의 산하기구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산하기구라고 하면은 이제 뭐랑 뭘 얘기하냐면 이제 의결기구, 자치기구, 전문기구 그다음에 특별기구 등을 이야기하는 데 그러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본회의 산하기구라고 볼 수 있나요? 일단 그게 좀 의문스럽고요. 만약에 산하기구가 맞다면은 구체적으로 의결기구, 집행기구, 자치기구, 전문기구, 특별기구 중에서 어디에 소속되는 것인지를 먼저 여쭙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현: 우선 질문주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규정에 명확하게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다 라고 규정된 바는 없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중앙운영위원회 의결로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회칙상의 관행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의결기구인 중앙운영위원회 산하이다라고 해석해 왔었습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 업무가 아니지만 선거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중앙운영위원회로 안건을 올려서 관련 내용에 대한 심의나 조정을 받아왔고 그것에 대한 근거가 말씀드린 대로 학생회칙상의 관행이 중선관위가 중앙운영위원회의 산하다라고 봐왔던 것이므로 그렇게 해왔던 전례가 있습니다. 전산학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입니다. 저도 제 의견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앞서 수리과학과 학생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또한 산하기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니터링 대상에는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물론 차회 다음 해, 모니터링 대상 이후에 중선관위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하지만 예를 들어 감사 보고서에 비대위가 명시되어 있고 비대위의 감사 점수가 낮다고 지금 이번 중집위가 영

향을 받지 않았듯이 불연속적이더라도 모니터링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산하기구의 공식 소통 매체에 관한 조사 방법에서는 제 생각에 일부 소수과의 경우 예를 들어 그런 경우에 거의 없겠지만 해당 학과의 학우들만 정확히 소속되어 있는 어떤 작은 공지방을 만들어서 계속 공지를 반복한다면 이걸 외부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은 학우 분들의 제보를 얻어두는 쪽으로 방법을 모색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리고 생자회와 관련해서는 생자회가 지금 산하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소국위의 업무로서 이것이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소국위원분들이 ISSS 근로위원으로서 또 일하고 있는데 그 근로를 돈을 받는 의무로서는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외국인 학우분들은 생활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소국위의 공식 업무는 아닐지 몰라도 근로비를 받고 있는 만큼 생자회에도 서비스 제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현: 네 의견 감사합니다. 논의사항 세 번째 관해서도 간략하게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행 방법으로 충분하다. 아니면은 현행에서 주기가 좀 더 짧았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라도 간략하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 저는 반기별로 1회 이상 반드시 공지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현: 네 의견 감사합니다. 정리하자면 번역 모니터링 대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포함 여부에 관해서는 포함하여야 된다는 의견이시고, 두 번째 논의 사항에 대해서는 능동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일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소통국제화위원회에서 각 학과의 공식 소통 매체라는 것을 공지를 하는 등으로 해두고 이에 대해서 뭔가 다르게 작용할 경우에 학우들께 제보를 받는 식으로 운영하는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논의사항에 대해서는 반기 별 1회 이상 안내하는 주기 제안해 주셨고, 네 번째에 대해서

는 본회 산하기구가 아니어서 번역 평가는 포함이 안 되지만, ISSS 소속 (소통국제화위원회) 위원들이 서비스를 제공해 줄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얘기했는데 정리해드린 내용이 맞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아까 발언권 요청하셨는데 산업디자인학과 학생회장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산업디자인학과 학생회장 윤서진: 네 1번, 2번, 4번의 경우에 전산학부 학생회장님과 비슷한 의견이고요. 3번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지금 번역 양식에 대한 안내가 소국위 공지 특방으로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특방에 있는 공지를 확인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메일 같은 다른 방법으로 한 번 더 안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한정현: 네 의견 감사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관해서는 전산학부의 의견과 비슷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세 번째에 관해서는 안내하는 매체로서 이메일 등의 전체 안내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네 의견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의견 받겠습니다. 앞서 수리과학과에서도 이제 본회 산하기구 포함 여부에 관해서 우선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에 이어서 추가로 논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실까요?

○수리과학과 학생회장 박재익: 사실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게 산하기구가 아니면은 말할 것도 없이 포함이 안 되는 것인데 산하기구로 볼 여지가 있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하고 일단은 일단 첫 번째로 우선적으로 이게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질문을 드린 것이었고 답변 주신 내용과 전산학부 학생회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보니까 산하기구의 취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여서 그러면 그냥 제 발언은 그냥 단순히 질문 아니면 논의를 위한 운을 띄는 정도로 취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현: 네 어떤 말씀이신지 이해했습니다. 본 네 가지 논의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첨언하실 내용이나 의견 말씀하실 부분은 없으실까요? 그러면

○수리과학과 학생회장 박재익: 아. 네 일단 1번에 대해서만 얘기했는데 2번 같은 경우에는 능동적인 조사 파악 방법에 관한 논의 이걸 사실 능동이라는 거는

이제 양쪽 손바닥이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소통국제화위원회에서도 노력을 해줘야겠지만 각 산하기구의 단체에서도 사실 먼저 이제 번역에 대한 것을 신경 쓰고 소국위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다음에 그럼 그걸 어떻게 해요가 아니라 먼저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좀 국제 학생들을 좀 신경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대표자들이 먼저 하는 것이 역시나 능동적인 조사 파악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번역 양식의 세부 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통국제화위원회에서 생각하는 저도 전체 메일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카톡방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휘발성이라는 것이 있고 실제로 카톡이 먹통이 됐었던 역사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안정적인 방법은 메일이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생활관 자체의 번역 평가 및 번역 서비스 제공 여부에 대해서는 이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소통국제화위원회에서 근로비를 지급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생활관 자체의 번역 평가 평가까지는 아니어도 서비스 제공까지는 해줄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현: 네 의견 감사합니다. 세 분의 위원께서 충분히 좋은 의견 주셔서 생산적인 논의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분에서 2분 정도 마저 의견 정리하고 검토할 수 있는 시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질문이나 의견 없으시면 오늘 안건도 정리하여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분에서 2분 정도 추가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질문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한정현: 추가적인 질문이나 의견 없으시면 논의안건 2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의사항인 번역 모니터링 대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할 것인가 여부에 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본회의 산하기구로 보아왔기 때문에 번역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하기구의 공식 소통 매체에 관한 능동적인 조사 파악 방법에 관하여서는, 소통국제화위원회에서 각 기구의 공식 소통 매체가 어떤 것이 현재 선정되어 있는지 공지를 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서 공식 소통 매체 또는 활성화된 매체가 이것이 아닐 경우에 학우들에게 제보를 받아서 시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안을 드리고, 이에 더해서 번역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국제 학생들의 학생 활동 참여에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 쓸 수 있도록 기구장과 대표자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책임 의식을 고취할 필요도 함께 있다라고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추가적·정기적 번역 양식에 안내에 관하여서는, 매체로서는 카카오톡 채팅방은 물론이고 이메일로 전체 안내하는 것을, 주기로는 반기당 1회 이상으로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번째, 생활관자치회의 번역 평가 및 번역 서비스 제공 여부에 관하여서는, 학부 생활관자치회는 본회 산하기구가 아니므로 학부 생활관자치회가 번역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학부·대학원 생활관자치회에 대한 서비스 제공 여부에 관하여서는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논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특별히 첨언할 내용이나 이의가 없다면 논의안건 제2호에 관하여서도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논의를 정리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의견이나 이의가 있으실까요?

○의장 한정현: 별도로 의의가 없으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논의안건 제2호 번역평가제도 개편 논의안에 대해 크게 네 가지의 논의사항을 정리하고 안건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논의안건 제2호도 마치겠습니다.

16. 논의안건 제3호 감사원 위원 결원 보충 논의안

○의장 한정현: 마지막 안건입니다. 논의안건 제3호 감사원 위원 결원 보충 논의안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상정근거는 학생회칙 제56조제6호입니다. 제안이유는 감사시행세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감사위원을 충원해야 하는 상황일 때 감사원이 전학대회 종료 후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고 이를 다음 전학대회

에서 서면의 형식으로 인준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이 때 감사원이 현재 위원이 결원이고 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원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 부족한 인원을 보충하고자 온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도 상반기 정기 회계감사 전까지 결원 보충에 대한 방법을 확정하기 위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 논의안건을 제안하고 하였습니다. 지난 제 2023-1회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문화자치위원회 위원 결함 보충 논의안을 논의안건으로 제안한 것과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부터는 참관한 감사원 원장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감사원장께 제안설명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원장 김현섭: 들리시나요? 주요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원은 현재 임기가 인정되는 현재 임기가 인정되는 인원이 두 명이라 가지고 감사원을 구성하고 운영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위원 모집에서도 모집 인원이 4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인만 지원하여서 이제 미달이 되는 등 인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이후에 다음 정기 전학에서까지 추가 모집을 하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방식을 논의안건을 통해 최대한 확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 번째로는 이제 감사시행세칙에 명시된 감사위원 자격에 대한 겸직금지 조항에 이제 좀 허들을 좀 낮추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이제 예전에는 격려금으로 월급처럼 줬는데 이제 감사 이제 돈을 감사원 위원에게 돈을 월급처럼 줬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 가지고 이제 그거라도 주면은 좀 더 인원을 모집할 때 메리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여서 이제 그걸 예산안에 추가해도 되는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싶어서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거를 지금 제안하지 않으면 예산안을 제출할 때 예산안 제출 하기 전까지 예산을 제출해가지고 예산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리크루팅에 돈을 줄 수 있다라고 이제 쓰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논의안건에서 뭔가 좀 이야기가 나와야 저희가 이걸 리크루팅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지금 논의를 하고자 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만약에 이렇게 했음에도 위원이 부족해서 이제 4명 이하면 저희가 감

사 보고서의 질을 이제 보장을 못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인원수가 부족할 경우에 대해서 이제 전학대회 비례대위원분들을 좀 차출해서 참여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큰 틀에서 세 가지 논의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위원 활동비 지급안입니다. 기존에 격려기금이 활동비처럼 위원 전체에 지급되었으나 이번 2023년 상반기 격려금 분배 심의안의 수정안의 의결 결과에 따라서 감사원은 감사원장 1인만 간부장학금을 받는 것으로 변경되어서 위원에 대한 활동비 명목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가 근로비 주는 형식으로 시간당 1만 원씩 근로비 주는 형식으로 글자 수에 비례해서 활동비를 책정해서 지급해준다거나 아니면 피감기관의 예산 규모에 비례해서 위원들에게 차등적으로 활동비를 지급한다거나 하는 방법으로서 활동비를 예산에 편성하는 것의 당위성에 대해서 논의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기존 예산안을 심의의결할 때에 근로비로 해서 스태프들 시간당 1만 원씩 혹은 연사비로 해서 연사 계약서를 써서 강연 한 두 시간에 연사 계약서를 5만 원에 10만 원 이런 예산 집행이나 사업의 경우는 있었는데 개별 활동비에 대해서 이런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쓴 적은 없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실상 처음에, 처음부터의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이렇게 글자 수 기준으로 산정해서 지급하는 거는 관련 내용을 살펴봤을 때, 회의나 위원회 활동 등을 할 때 관련 의견서를 제출한다거나 아니면 전문가가 교수나 아니면 관련 업계의 전문가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뭔가 보고서를 쓸 때 그 보고서에 지면 페이지 수나 글자 수에 비례해서 지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점을 차용해서 이렇게 글자 수에 따라 활동비를 차등 지급하는 내용으로 안을 하나 만들어 주셨고요. 이게 22년도 하반기 감사보고서 기준 총 2만 3천자 정도여서 이게 한 40만 원 정도로 산정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피감기관과 주고받는 질의서까지 포함이 될 것이고 기존에 메일로 보냈던 건 포함이 안되고 이번 감사 때 질의서로 인한 소통이 증가될 것으

로 예상되어서 40만 원에서 소폭 증가할 수 있다라고 까지 안건에 기재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회계감사를 시행하는 피감기관의 예산 규모에 따라서 예산 규모가 클수록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아지는 것이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다 보니 이게 비례해서 차등적으로 활동비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시행규칙 일부 개정 세칙안을 제안하는 내용인데 취지는 감사원 위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겸직 금지 조항으로 인해서 훨씬 더 큰 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허들이라도 낮추는 방향으로 제안을 해주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는 피감기관의 위원 즉 학과 학생회 집행부원이나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 행사준비위원회 위원, 소통국제위원회 위원, 특별기구 VOK나 G-inK 회원 같은 경우에도 모두 감사원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는데 이에 대해서 피감기구의 기구장 및 회계 담당자를 담당자의 경우에만 겸직할 수 없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단서 조항에 따르면 새학대회 대의원 보통은 새학 회장단 또는 반장인데 일단 피감기구 대표에 새학 회장단이 포함돼 있으니까 제외를 하면은 새터반 반장이고요. 동아리 앞에 동아리 대의원이면은 동아리 회장이 됩니다. 그래서 통상 반장, 부반장 또는 동아리 회장 정도를 제외하고는 본회 산하기구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감사원에 모두 의원으로 직을 가질 수가 없었는데 이에 대해서 임기 중에 피감기구 기구장 또는 회계 담당자를 겸직할 수 없는 경우로만 축소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의 주요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재직 중이라는 표현을 임기 중으로 좀 더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회계 담당자의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기존에 감사시행세칙 제4조에 있던 내용 피감기관의 정의에 더해서 회계 담당자의 정의나 회계 책임자의 정의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신설 표시가 없어서 신고 동문 대표를 만약에 개정하시게 되면 조금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 지금 여기가 번호가 1, 2, 3이 돼야 되고 여기에 이제 행설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감사원에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러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도저히 운영이 어렵다고 하면은 문화자치위원회를 이제 총학생회장단 및 중앙집행위원회 국장 중 1인 학부, 학과 학생회장 중 2인 상설위원회 위원장단 중 1인 이렇게 파견했던 것처럼 감사원도 이렇게 파견하는 방식을 취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세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감사위원회 측에 필요한 내용들은 참고 사항을 기재해두었습니다. 관련해서 질문이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발언권을 요청한 수리과학과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수리과학과 학생회장 박재익: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일단은 세 가지 안을 제출해 주셨는데 이 세 가지가 서로 mutually exclusive 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세 개를 다 해도 막말로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각각에 대해서 약간의 메리트와 디메리트가 각각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 이제 활동비를 지급하자는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지만 단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어쨌든 활동비를 감사원 예산에 포함하게 된다면 그 예산을 검토하는 단체가 검토를 하는 것이 이제 중앙운영위원회 및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가 있을 텐데 그러면 중운위와 전학대회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기구들과 이제 완전히 분리가 될 수 있는 게 맞는지 그러니까 해당 기구들이 참여한 해당 기구의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그런 회의 의결 기구에서 감사원의 예산을 측정한다는 사실이 이제 과연 감사원이 정말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것이 맞을지에 대한 사소한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겸직 금지라든지 아니면 전학대회 비례대의원의 회계 감사 참여 안에 대해서 그냥 다 비슷한 이제 의미로 찬성을 하는데요. 사실 극단적으로 말해서 제가 수리과학과 학생회장이지 않아요. 근데 제가 회계 감사에 참여를 해서 예를 들면은 그냥 예시로 말씀드린 거 제가 수리과학과 학생회장으로서 예시로 전산학부의 회계 감사 서류를 검토한다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사실은 잘 모르겠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냥 본인의 단체와 관련이 없는 서류들을 검토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겸직 금지라는 것을 뒤가지고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옛날부터 의문이 있어 왔어서 그

라서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현: 네. 의견 감사합니다. 이어서 산업디자인학과에까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산업디자인학과 학생회장 윤서진: 회칙 개정 부분에 14조에 겸직 금지 부분에 피감기구에 기구장 또는 회계 담당자라고 돼 있는데 기구장에는 만약에 학과 학생의 경우에는 학생회장만 포함이 되는 건가요?

○의장 한정현: 현재 제출된 내용에 따르면 학과 학생 한명만 포함되는 게 맞습니다. 감사원에서는 혹시 이 부분은 의도하신 것인지 아니면 학과 학생회장 단으로 함께 하는 것이 더 맥락상 맞을지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원장 김현섭: 제가 기구장으로 쓴 거는 저희 매뉴얼 포함해서 이제 총학생회에서 이번에 예산안 작성 만드신 거에도 이제 기구장으로 과학생회장을 적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은 의미로 피감 기구가 만약에 과 학생이면 과 학생의 회장만 의미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장 한정현: 네 그러면 질문 주신 취지 중에 하나는 그럼 부학생회장은 감사위원이어도 되는가일 것 같은데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감사원에서는

○감사원장 김현섭: 비례대의원의 대부분이 제 생각에는 부회장과 부회장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까지 제외하면 정말로 차출할 인원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부회장이 이제 그 단체를 이제 대표하는 사람이지만 이제 총학생회장 과학생회장보다는 덜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두 학생회장까지 포함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의장 한정현: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산업디자인학과 학생회장 윤서진: 제 의견 말해도 될까요?

○의장 한정현: 네 발언권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산업디자인학과 학생회장 윤서진: 다른과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학과의 경우에 회계감사 자료를 작성할 때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 그리고 회계 담당자 3명이 각각 부분부분을 나눠가지고 작성을 한 다음에 합치는 식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겸직금지가 있는 의미가 회계 문서를 작성하는 권한이 있는 아니면 작성을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감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라면 학생회장 같은 경우에도 저희 과의 경우는 추가가 필요해서 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의장 한정현: 네 의견 감사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만 감사원 의견을 좀 듣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감사원에 일단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저희 각종 서식에 기구장을 명시하라고 되어 있는 거는 행정 권한에 있어서 행정청을 명시할 때 행정기관의 장으로 써야 돼서 그런 겁니다. 단순히 그런 맥락에서 일단 기구장을 기재로 되어 있는 거고요. 이 예산안에 대한 제출 과정에서의 최종 결재권자거나 아니면은 결재권자일 수 있겠는데 최종적인 모든 책임을 온전히 기구장이 다 진다. 혹은 그런 맥락에서 아니면 재정문 제17조에 있는 사과문 게재에 포함되는 게 기구장 및 회계 책임자인데 그거를 인용해서 쓴 건 아니었습니다. 행정 권한을 행정기관이 행사할 때 행정청의 명의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안이나 각종 보고서에 기구장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지 말씀해 주신 재정세척이나 회계 책임자 이런 맥락은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을 고려해서 산업디자인학과 학생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원장 김현섭: 우선 말씀해 주신 이유가 맞습니다. 이제 회계 서류 작성하는데 이제 어떤 어느 정도의 이제 영향을 줬거나 아니면 이제 회계 서류가 잘못되었을 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그 정당성을 보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의견이 갈릴 것 같아가지고 좀 더 안전하게 가자는 취지로 14조에 기구장과 회계 담당자는 겸직할 수 없다고 적었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내용에서 이제 산업디자인학과 같이 회장, 부회장 및 총무가 이제

3명에서 같이 회계자료를 제작한 경우에는 위에 14조 위에 이제 보시면 여기 숫자 5라고 되어 있는데 옆에 회계 담당자의 정의를 보시면 회계 자료 제작하는 사람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셋 다 회계 담당자라고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현: 네 설명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대로 본 개정안 제안하는 취지는 회계 서류를 만드는 데 관여할 수 있는 혹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감사위원으로 두지 않겠다는 취지인데 거기에는 이제 말씀해 주신 상황에 따르면 부학생회장도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다만 이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제안한 안에는 회계 담당자를 정의하여서 이를 포괄하고 있다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네 우선은 발언권을 손 드신 순서대로 드리겠습니다. 전산학부에 먼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 감사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면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대부분의 학과가 회장 단위 감사 회계 감사 자료를 같이 제작을 하기 때문에 네 부회장도 아마 감사위원으로는 참여가 거의 모든 학과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전학대회 비례대의원에서 회계감사를 참여하게 될 경우 여기서 일단 회장과 부회장이 제외되고 나면 대부분의 전학대의회원이 참여가 불가능하고 남은 사람은 이제 당연직 대의원과 그 부회장으로 대의원에 참여한 사람을 제외한 대의원이 될 텐데 그게 10명이 채 되지 않고 특정 학과에만 몰려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감사는 모든 학과가 책임을 함께 하는 문제인데 특정 학과에서만 이 대상이 한정된다는 게 특정 학과에게도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다른 학과 입장에서도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전학대회 비례대의원의 회계 감사 참여를 반대하고요. 그리고 운영비 지급에 대해서 말씀을 운영비가 아니라 근로비 명목의 예산 지급에 대해서 네 활동비 지급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감사원이 지난 전학 때 상반기 격려금 논의에서 감사위원의 격려금이 사라졌던 배경을 생각해 보면 과연 감사위원이 특정 많은 일을 하는 건 맞지만 특정 기간에만 많은 일을 하고 다른 전문기구도 다 각자의

일들을 하는데 왜 감사위원만 봤냐는 의견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 충분한 납득이 없었기 때문에 감사위원회 격려금이 사라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순히 모집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다시 돈을 주세요 하는 것이 지난 논의를 너무 무시하는 일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고요. 과연 이렇게 돈을 올린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하려던 사람이 지원을 과연 실질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충분히 많은 고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안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와주셨는데 모집이 안 되니까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바꾸고 싶습니다라고 제시를 해 주셨는데 좀 순차적으로 가는 단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뭔가 우리가 그동안에 있었던 많은 논의를 뒤엎는 일인데 단순히 이번에 모집이 안 됐다고 한꺼번에 이만큼을 바꾸자고 하는 것보다는 이게 안 되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바꿔봅시다로 좀 점진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현: 네 감사합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전학대회 대의원이 한 40명대로 있는데 40명대인데 그중에 비례대의원이 동아리연합회 5명 전산학부의 5명 전기및전자공학부의 5명 3 내지 학생회 4명 수리과학과 기계공학과에 2명씩 새내기학생회 수리과학과 기계공학과 3명씩 그리고 생명화학공학과에 2명 배정이 되어 있을텐데 대부분 부학생회장 혹은 과대표 부과대표까지가 비례대의원직을 맡고 있고 유일하게 이제 새내기학생회랑 동아리연합회만 동아리연합회 이제 비례대표 4명만 당연직 대의원이 회장단이어서 그 경우에만 비례대의원이 모두 이제 회장단이 아닌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학과의 경우에도 그 학생회장 내지 과대표가 한 명 이상이어서 비례대원의 대부분의 구성원이 학생회장단과 과대표단 내에서 다 끝나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감사원에서 함께 고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수리과학과 여기서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수리과학과 학생회장 박재익: 수리과학과 학생회장 박재익입니다. 일단은 기존 논의와 조금 많이 동떨어진다는 전산학부 학생회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부분 다른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사실 그

때도 저는 분명히 해당 당시에 감사원장이었던 분께서
 그니까 이 정도의 활동비는 있어야지 약간 활동비 개념에
 무언가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활동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안 받아들여진 것이거든요.
 하지만 그게 안 받아들여진 것은 맞으나 사실 그것은 이제 감사원한테만 탓이 있다고 할 순 없죠.
 왜냐하면은 그걸 것도 해당 의결에 참여했었던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그걸 어쨌든 안 받아들이고 말고를 떠나서
 현재 지금 지금 당장 정기 회계 감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봐도 집행력이 부족한 상황이 되어
 있으니까 사실 조금 더 급진적으로 봐도 사실 저는 괜찮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그것과 별개로 감사원장께서
 이제 검직 금지랑 그런 것들을 풀어주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그런 취지로서 회칙 개정을 제시를 살짝
 해 주셨으나 저는 이제 지금 현재에 있는 그런 의도는 좋으나
 이제 실제로 그 의도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약간 의무가 드는 게 회계 자료를 제작하는
 사람을 회계 담당자라고 얘기했고 회계 담당자를 검직할 수
 없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으로서 뽑혔는데 그 사람이 회계 담당자였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인을 하죠? 그러니까 이 회칙상의 정의에
 따르면은 회계 감사 자료에 단 한 글자라도 썼으면은 그
 사람은 회계 자료를 제작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회계 담당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해당 사실은 그 기구 내에서만 알 수
 있는 사실이지 이제 감사원에서 이것을 입증하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회계 담당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감사원장의 그런
 취지를 좀 더 확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리학과 학생회장이 전산학부의 사회
 감사 서류를 회계 자료를 이제 감사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사실 저는 진짜 모르겠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검직 금지를
 줄 게 아니라 각 감사위원이 각 감사위원의 업무 범위에
 어떤 단체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위원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되 해당 감사위원이
 어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어떤 어떤 기관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지를 명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자유롭게 많은 사람들이 감사위원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입증이 되잖아요. 이 사람은 언제 언제
 이제 이 단체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단체와
 이제 유관이 깊어가지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는
 입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감사원장의 취지와 맞는
 맞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현: 여러 가지로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감사원에서 바로 답변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답변이
 필요하다면 답변 먼저 듣고 다음 발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 원장 김현섭: 사실 동의하는 의견을 말하고
 자 했습니다. 사실 검직 금지를 넣은 이유는 이게
 사실 이게 너무 많이 허들을 내리면은 이제 반대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올린 거긴 한데 실제로
 이제 저희가 찾아봤을 때 많은 학교에 감사원들이
 검직금지 조항이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거의 유일하게 검직금지가 있는
 상황이라서 검직금지 자체를 풀어
 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이거에 안 될 경우나 아니면 이제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실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든 상황입니다. 이제 이것을
 없애도 14조 자체를 없애도 저희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5번과 6번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생각을 해야하겠지만 이제 사실 5번과
 6번에 대해서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희가 이제 만약에
 회계 자료가 많이 불안정하고
 입증이 잘 안 돼가지고 여기가
 이제 뭐냐 사과문을 작성하거나
 변상 책임이 있다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되는가가 이제 중요한
 것이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는 회계 서류를 작성한
 사람에 대해서 전부 이제
 책임을 물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제
 그 분기가 반기가 시작하기
 전에 회계 담당자의 명부를
 받아가지고 이제 이용하기로
 하려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지금도 그 생각을 이제
 만약에 진행된다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은 이제 만약에
 그 서류가 잘못됐을
 경우에 책임을 지

어야겠조 그러면은. 그렇게 운영하려고 5번에 대한 조항을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의장 한정현: 답변해 주신 내용 충분히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처럼 회계 감사 서류에 회계 담당자 즉 이 서류를 만드는 데 조금이라도 참여한 사람에 대한 명단을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주시는 것이 말씀해 주신 취지를 달성하는데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더해서 타 대학의 감사위원 겸직 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 정리가 되면 제가 회칙 개정특위위원회에서 안건을 제안하거나 혹은 감사원 제안으로 제가 중운위에 안건을 발의할 때도 심의할 때 좀 더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학교 조사를 좀 더 적극적으로 레퍼런스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겸직금지 조항의 의미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선거시행세칙에도 피선거권을 가진 사람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공직'이라는 용어로 기술하고 있는데 학생회칙 상의 겸직금지가 학생회장단, 동아리연합회장단, 새내기학생회장단, 총학생회장단, 상설위원회 위원장단, 중앙집행위원회 국장, 중앙집행위원장 이런 카테고리라면 선거시행세칙상의 공직으로서 피선거권이 없는 경우는 특별기구장 전문기구장까지 포함이 됩니다. 동아리연합회 분과장도 포함이 되고요. 이렇게 공직을 설정했을 때 목표는 목적은 그리고 그 취지는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내지는 소위 말하는 권력을 가진 사람을 입후보 시킬 수 없다는 취지였는데요. 분과장이면 그 소속 분과 동아리들의 뭐 특별기구 장이면 본인이 속해 있는 특별기구의 구원들에게 뭔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이나마 있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공직이라고 규정해서 선거세칙 상에서 피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인데 겸직금지도 마찬가지로 회계감사 서류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같은 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이 이제 감사위원으로 있을 때 그 단체의 장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단정적으로 말하면 당연히 없겠지만 그런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겸직 금지 조항이 있는 거였고 그거를 원천 봉쇄하는 차원에서 기존의 총학생회에서 논의된 거는 이제 본회의 산하기구의 직을 가지고 있으면 위원직을 하나라도 가지고 있으면 겸직이 안 되는 것이었는데 말씀해 주신 내용들처럼 이것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정상 적절치 않기 때문에 barrier를 낮추고, burden을 낮추고 범주를 좁히는 것에 대해서는 취지를 어느 정도 달성하는 선에서 현실을 고려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나 이걸 전면적으로 없앤다거나 아니면 회계감사서류에 조금이라도 터치할 수 있는 사람이 겸직에 안 걸린다면 본래의 목적에 취지에 조금 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도 함께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겸직금지에 관한 설명은 이 정도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산업디자인학과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산업디자인학과 학생회장 윤서진: 네 활동비 지급에 대해서 전산학부 학생회장님께서 지난번에 격려금을 감사위원들한테 주는 걸 반대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과 격려금을 주는 것은 어느 정도 좀 다른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해서 그때 반대한 것과 활동비 지급 같은 맥락으로 활동비 지급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완벽하게 동일하게 된다고 생각하진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한정현: 네 감사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스트리밍을 또 확인해 보시면 명확하게 확인 하실 수 있겠지만 그 당시 이제 감사원장께서도 격려금을 감사영향을 안 줄 경우에 우리가 인원을 모집하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또 산업디자인학과 학생회장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당시 감사위원에게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안을 구성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타 기구장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었고 또 감사원이 한시적으로 일을 한 단체이기 때문에 한 학기 전체 반기 전체에 대해서 활동을 평가하고 그거에 대한 책임감을 인정해주는 격려금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한시적으로 일하는 것에 대해서만 인정해 주기는 좀 부적절하지 않은가 하는 내용에서 감사위원회에 격려금 지급을 안 하는 방향으로 안을 구성했던 것으로 기록이 남아 있고요. 말씀해 주신 내용대로 격

려금과 활동비를 같은 선상에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일하는 단체인 만큼 한시적인 활동에 대해서만이라도 활동한 것에 대한 확실한 메리트가 있어야 된다는 것에 관점이고 그거에 대해서 그 관점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다면 격려금보다는 활동비가 좀 더 적절한 솔루션일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산학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 네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입니다. 조금 전에 산업디자인학과 학생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듣고 보니 저도 격려금에는 뭔가 좀 부적절한 상황이 있었지만 활동비를 주는 것은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으로 생각을 바꾸게 되었고요. 활동비를 지급하게 된다면 저는 조금 모호한 기준이 될 수 있는 글자 수보다는 예산 규모를 기준으로 하는 2안이 조금 더 바람직한 안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아까 비례대의원의 감사 참여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지만 일반 집행부원이나 그런 겸직 금지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네 지금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현: 네 의견 감사합니다. 그런 전반적인 의견이 겸직 금지를 조금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해 주신 의견이고 활동비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인원 부족에 대해서 일부 공감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급할 필요성이 당위성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비례대의원 회계 감사 참여안에 대해서는 참여할 수는 있겠으나 겸직 금지 때문에 현실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거의 없겠다라고 분석이 되고요.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정리를 드리면 제 생각에 감사원에서 전학대회 비례대의원 회계감사 참여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좀 다시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안해 주신 겸직 금지 조항에 의해서만이라도 비례대위원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10명이 채 안 되기 때문에, 10명이 채 안 되거나, 10명에 거의 남짓한 숫자일 것 같기 때문에, 기존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이 방안이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한번 재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정안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감사원에서 완화하는 안을 적절히 구성해서, 이 내용 그대로 가져가셔도 좋고, 여기서 더 제외해도 괜찮고, 그 내용대로 안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중앙운영위원회 산하의 하급위원회를 통해서 중앙운영위원회를 통해 안건을 발의하고, 세칙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해서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저희가 빨리 하면 8월 중으로 다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활동비 지급 안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일부 공감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방안까지 좀 정리를 한 오늘 회의 정리를 하면, 감사원에서 추후 업무 보시고, 또 리크루팅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활동비 지급 자체가 전반적인 동의 의견이면은, 예산 규모는 1안으로 활동비를 책정하나 2안으로 책정하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1안이 40만 원인데 소폭 상승할 수 있다고 2안이 44만 3천 원 정도이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이번에 예산안에 기재를 하게 된다면, 활동비로서 한 50만 원 상당으로 기재를 하시고, 그 안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감사원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혹은 제한된 기준에 따라서 위원회 활동비를 분배를 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감사원에서 본 안건을 올리신 목적과 같이 중앙운영위원회 혹은 본회 차원의 공감대가 있어야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명분이나 당위성이 좀 더 확보가 되고, 그렇게 했을 때 감사원에만 너무 치중돼서 활동비가 나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필요성에 대해서 본회의 차원에서 충분히 인정이 되어 왔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선행되어야 그런 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서 활동비 지급안에 대한 동의 여부와 동의한다고 했을 때 1안과 2안 중에 어떤 것을 조금 더 선호하시는지까지 위원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총학생회장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총학생회장께 발언권 드렸습니다.

○총학생회장 강동재: 혹시 제 발언이 안 들리셨나요?

○의장 한정현: 지금부터 들립니다.

○총학생회장 강동재: 네 그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장님께 여쭙고 싶은 게 1안으로 하는 것이 실제 활동 내용을 더 잘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2안으로 할 경우가 더 활동 내용에 맞게 지급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1, 2안 둘 다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의장 한정현: 네 감사원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원장 김현섭: 네 저는 1안보다는 2안을 더 선호하는 편인데요. 근데 사실상 1안과 2안 전부 다 활동을 어느 정도 한 만큼에 비례해서 금액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만약에 만점을 맞더라도 최소한 500자 정도에 이제 한 단체당 한 단체 만점 받더라도 500자 정도의 이제 서류가 써지기 때문에 최저 금액이 있고 이제 만약에 감점이 많아지면은 감점에 따라서 이제 감점이 있으니까 이제 질의서를 보내고 또 추가 서류를 받아오고 하는 이제 그거에 대한 수고로움이 있기 때문에 감점이 있는 경우에 수고로움이 있는데 대신 감점이 있으면 이제 보고서의 내용도 많아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질의서까지 포함하면 이제 일을 한 만큼 좀 더 많이 받아가는 그거에 대한 그런 비례의 관계는 있고요. 2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액과 서류 제출 양이 좀 상관관계가 있는 편이라서 이제 상호같은 이제 상호나 이제 일부 이제 특수한 단체 말고는 이제 상관관계가 있는 편이라 가지고 있는 서류의 양을 기준으로 한다면 2안도 이제 일한 만큼에 비례해서 받아간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2안을 더 선호한 이유는 1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일부 좀 마음을 잘못 먹은 감사위원분들이 일부러 글자수를 늘리거나 아니면 이제 감점을 주면 줄수록 이제 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징벌적으로 감점을 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질의서에 쓸모 없는 내용까지 질의를 해가지고 일을 늘리거나 할 수 있는 이제 최악의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감사원장이 정말로 잘 컨트롤 해야 한다고 보는데 저는 저 스스로 열심히 하겠다는 자신이 있지만 이제 다음 감사원장이 나 다다음 감사원장이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완전히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생각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2안을 좀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다만 다른 안이 있다면은 다른 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장 한정현: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많은 부분들을 고려하시고 공유해 주신 것이 말씀해 주신 내용에서 충분히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총학생회장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마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총학생회장 강동재: 네 좋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안 중에서 어떤 것을 결정하느냐 혹은 새로운 어떤 안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실제 실무자인 감사원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방금 모든 설명을 들었을 때 그러면 2안이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결정하고 이제 다른 또 논의를 진행했다면 좋겠습니다.

○의장 한정현: 네 의견 감사합니다. 총학생회장께서 실무진의 의견에 따라서 이런 활동비 책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하고 감사원에서도 2안을 여러 가지 이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선호하시기 때문에 활동비 지급에 대한 것이 중운위 차원에서 지급에 대한 당위성이 인정이 된다면 2안을 통해서 기준을 책정하는 것이 적절하겠다고 의견 주셨습니다. 산업디자인학과에서도 감사원 의견에 동의하여 2안이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까지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보면 의견 주신 위원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밖에 반론이 나오지 않는 것을 통해서 제가 회의의 분위기를 파악했을 때는 활동비 지급 자체에 이제 크게 이견은 없으신 것 같고 그 안에서 상세한 방법으로 감사원에 설명해 준 내용에 따라 2안이 선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이견이나 이의가 없다면 첫 번째 논의 사항 위원 활동비 지급안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감사원에서 위원 활동비를 감사원 예산으로 편성해서 심의 받는 것에 대해 중앙운영위원회 차원에서 그 당위성과 적절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활동비의 산정 기준은 감사원에서 제안한 2안으로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정리하고자 하는데 관련해서 첨언하실 위원이나 이견 또는 반대 의견 이의가 있는 의원 계실까요?

네 좋습니다. 총학생회장께서 Zoom 채팅으로 금년의 경우 감사원장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불필요한 부적절한 활동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다는 내용을 회의 결과에 덧붙여 기록하면 좋겠습니까라고 해주셨습니다.

논의안건을 정리할 때 위원 의견을 함께 기재하기 때문에 위원 의견으로서 활동비에 관한 내용 2023년도의 경우에 감사원에서 불필요한 또는 부적절한 활동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는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이 정도로 제가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에서도 이에 대해서 동의하실까요?

○감사원장 김현섭: 동의합니다.

○의장 한정현: 좋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감사시행회칙 일부개정세칙안 제안안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고려하여 현재 제안된 내용들을 우선 진행을 하시되 제가 보충 의견으로서 아예 검직 금지에 대해서 좀 더 지금은 중간 정도로 완화한 거라고 친다면 전격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위원들은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논의된 내용은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추가적인 의견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선 총학생회장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총학생회장 강동재: 방금 두 번째 말씀해 주신 안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정리해 주신 것에 추가적으로 감사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전에 수리과학과 학생회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잘 전달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회계 담당자 혹은 회계 책임자라는 이런 어떤 역할을 설정해서

이 역할에 따라 제한을 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루고자 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그렇게 의견을 주신 걸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저도 맞다고 보고 감사는 결국 하고자 하는 게 이런 검직 금지라는 조항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활동을 못하는 사항을 해결하고 싶은 거니까 그럴 경우에는 지금 담당자 책임자 같은 그런 직함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하는 업무를 잘 규정을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업무를 규정한다고 함은 예를 들어서 어느 범위까지 어느 기구까지 감사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잘 identification 하는 것은 감사원에서 진행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이 회칙 개정 혹은 이번 연도에 있어서 어떤 변경을 가져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번까지 지금 한 번에 마무리해도 되나요? 아니면 3번을 또다시 다루주실 건가요?

○의장 한정현: 두 번째 논의 내용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학생회장 강동재: 네 그러면 발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총학생회장 강동재: 네 총학생회장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는데 감사원에서 다음에 개정안을 제출하실 때 해당 내용까지 함께 고려를 해서 개정안을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검직 금지를 걸어놓긴 하되 검직 금지를 걸어놓은 이유에 대한 설명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감사원의 어떤 학생이 감사원에서 위원으로 활동한다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 어느 범위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어떤 직에 있으면 안 된다 어떤 일을 하는 학생회의 부원이면 안 된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검직금지 조항의 취지를 살리고 감사원에 목적하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원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진행하실 수 있을까요?

○감사원장 김현섭: 네 여기에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되나요?

○의장 한정현: 그 부분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원장 김현섭: 여기 번호 잘못 나왔긴 하는데 5번에랑 6번에 있는 회계 담당자 회계 책임자라는 명칭은 이제 저희가 이 14조 말고도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드리고자 하는 생각이 없고요. 14조 같은 경우에는 검직금지 조항 제한을 아예 풀고 이제 이제 자기 기관에 자기가 소속된 기관의 감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다른 조항에 명시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감사 보고서에 어떤 감사위원이 어떤 피감기관을 맡았는지에 대해서 명시를 함으로써 이러한 우려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자 합니다. 괜찮을까요?

○의장 한정현: 말씀 주신 내용 중에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검직 금지의 본래 목적은 감사원 내에서 감사위원들이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할 때 거기에 이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를 이제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검직 금지를 푸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단체명을 특정하면 조금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a 단체를 하겠습니다. 제가 a단체 단체장이고 b학과 소속인데 a 단체 부원인 c 학과 학생이 같이 감사원으로 있으면 일단 저한테는 a 단체랑 b 학과 서류는 안 오겠죠 근데 이제 그러면 그 c 학생한테 c 학과에 있는 학생한테 제 학과나 아니면 제 단체 서류가 나갈 수 있을 텐데 그때 제가 그 단체장이라는 지위를 남용해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할 수도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막으려고 검직금지 조항을 걸어놓은 것인데 기구장을 포함해서 아예 없애버린다면 그런 본래의 취지에 반하는 개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여기서 비단 회계 감사뿐만 아니라 선거나 다른 활동에서도 마찬가지이고요. 다만 좀 더 우리가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되는 사안이 이제 회계 감사, 선거 이런 영역이다 보니 여기에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이 되어서 제한을 걸어두는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원장 김현섭: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뭔가 좀 더 말씀드려야 되나요?

○의장 한정현: 해당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일단 여기서 어떤 방향으로 개정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정도만 정리하고 넘어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슈가 되는 게 회계 담당자가 이제 어디까지 속할 수 있는가 그리고 회계 담당자의 회계감사 서류에 뭔가 터치하는 사람이 검직을 못하도록 해서 내가 관련된 학과 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거에 대한 감사조차도 원천 봉쇄하는 게 적절한가에 대해서가 이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감사원의 업무 범위랑 감사위원이 어떤 문서를 만들 때 어디까지를 내가 해야 돼서 그러면 내가 내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어디까지인가 그러니까 감사위원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identification이 명확히 되면 조금 더 논의가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구장을 검직을 걸어놓는 것은 불가피할 것 같고요. 회계 담당자의 범위나 회계 담당자의 검직 금지 여부를 말씀해 주신 그 identification이 끝난 이후에 감사원 내부 논의 과정을 거쳐서 그 부분을 포함하여 개정 제안안을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감사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더 듣고자 합니다.

○감사원장 김현섭: 그게 중운위에서 중앙운영위원회에 합의된 의견이면 따라가지고 고쳐서 이제 회칙개정특임이나 아니면 이제 제가 총학 측에 안건을 부의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한정현: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차원의 논의가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하겠네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구장의 검직을 제한해 놓는 것은 부적절한 영향력의 행사라는 차원에서 필수적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이 본래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의 개정이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회계 담당자의 범위나 회계 담당자 전원을 검직 금지를 걸어놓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논의된 내용대로 그러면 감사위원이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여서 이 회계 담당 혹은 회계감사 자료에 서류 좀 터치를 하는

사람이 못하는가에 대한 그런 identification이 있어야 좀 더 논의가 용이할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먼저 감사원에서 해주시는 것이 선행돼야 될 거고 이 이후에 이를 고려해서 만든 개정 제안안을 감사원에서 올려서 이 내용으로 우리가 발의안을 심의토록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중앙운영위원회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여쭙습니다. 요약하면은 검직 금지 조항에 대해서 현재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 저 안에서 피감기구 기구장은 무조건 포함시키도록 하되 회계 담당자에 관해서는 감사원에서 논의 내용을 반영해서 적절히 조사하고 연구한 이후에 개정안을 올리고 그 개정안을 발의하는 안건을 우리가 주문에서 다시 한 번 심의할 텐데 그때 최종적으로 결정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중간에 회의를 한 번 더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재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운영 계획상에 두 번 정도가 더 남아있는데 그전까지 회의를 열어서 이걸 더 논의하고 논의안건 한 번 더 다루고 할 시간은 제가 확답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정된 운영상의 계획으로라면 말씀드린 대로 다음 정기회의에서 발의안 심의하고 다음 정기회의에서 개정안 심의하는 것이 업무상의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견 없으시면 말씀드린 내용대로 논의를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정리해도 괜찮을까요? 총학생회장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총학생회장 강동재: 네 일단은 저는 아까 수리학과 학생회장님께서 해 주신 말씀과 그리고 부총학생회장님께서 이 피감기구 기구장을 넣어야 한다는 말씀들 다 어느 부분 그게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존중을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8월 7일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이 논의를 다룰 경우에 감사원에서 감사위원을 추가 모집한다든지 그 이후에 회계감사 보고서를 쓴다든지 그런 데 업무에 차질이 없는가요? 이 부분을 감사원장님께 여쭙보고 싶습니다.

○의장 한정현: 네 해당 부분은 감사원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원장 김현섭: 검직 금지 조항이 있을 경우에 차질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게 저희가 결국은 전

학대회에서 서면 의결이라도 받아야 감사위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8월 7일 전까지는 아마도 리크루팅이 어렵지 않을까 리크루팅이 가능하다라도 실제적으로 인준을 받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 안건이 발의가 돼가지고 8월 7일 이후에 실효성이 생기더라도 이제 실제로 이제 누구를 뽑아놓을 지를 미리 정하는 건 약간 어려울 수 있어도 이제 8월 7일 이후에 리크루팅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아무튼 제 생각에는 8월 7일에만 되면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의장 한정현: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제가 정정해 드리면 8월 7일에 개최 예정이 유력한 중앙운영위원회에서는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1일에 개최될 정기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이제 심의하여 개정을 하는 건데 8월 7일을 due로 잡고 계신다면 그 전에 발의를 해서 8월 7일에 심의를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중운위에서 발의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운영위원 연서로 발의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가능한 합니다.

○감사원장 김현섭: 21일이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8일까지 8월 28일까지 서류를 8월 31일까지 서류를 받을 거기 때문에 8월 21일에 발의가 이제 안건이 올라가서 이제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제 그 사이 기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리크루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혹시 지원자 중에 있다고 하면 약간 이제 좀 꿈수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리크루팅 면접을 이제 좀 미뤄지고 합격 결과를 이제 안건이 발의된 이후로 옮긴다든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점들을 생각해 보면은 충분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한정현: 네 어떤 말씀이신지는 이해했고요. 근데 다만 홍보할 때 참여 범위에 대해서 안내를 항상 했던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일부러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합격 통보 기간을 좀 미뤄서 한다거나 하는 부분은 조금 학생회에서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러면 8월 21일에 개정을 해

서 이게 또 공포 후 5일 후 발효입니다. 그래서 21일에 개정을 하면은 5일 뒤에 발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말씀해 주신 대로 홍보 글을 올린다거나 아니면 약간의 다른 방식을 쓰면 공포 전까지 공포까지의 유예 기간을 두는 것은 법에서 그냥 유예 기간을 두는 효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뭘 한다고 내용이 바뀌진 않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이 의결되면 그 이후부터 발효되기 전까지 그냥 유예 기간 5일이 있는 것뿐인데 그때 홍보글을 올리시는 거는 법률적인 관점에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타임라인대로 21일에 개정 의결을 진행하여도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여도 감사원에서 2023년 상반기 회의 감사에 필요한 감사위원을 모집하고 어 선발하는데는 큰 어려움은 없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내용을 이해하였습니다. 이어서 총학생회장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총학생회장 강동재: 네 이제 이 사안을 빠르게 마무리하려고 제가 발언권을 요청드렸는데요. 일단 감사원에서 가장 취해야 할 자세는 지금 14조에서 피감기구의 기구장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할지 아니면 회계담당자 중에서 어느 일부까지만 겸직하지 못하도록 할지 내부적으로 빠르게 논의해 보시고 이걸 정확히 파악을 해보시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 과정이 이미 다 끝났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이걸 논의해서 우리 중앙운영위원분들은 이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그 논의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한 번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다음에 우리 논의합시다. 그리고 그때 심의·의결합시다가 된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의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 주셨던 것처럼 그걸 일단 오늘 회의에서 지금 저희가 영영 시간을 끌고 그걸 더 논의할 수 없으니까 오늘 회의가 끝난 뒤에 감사원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만약 그 결과 피감기구의 기구장을 겸직시켜도 된다.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구장이 그렇게 영향력 행사하는 것도 우리가 다 컨트롤할 수 있고 다 크로스 체킹이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막을 수 있다. 그런 판단이 서시면 이걸 제외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에게 요청을 하셔도 되고 그게 아니라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겸직을 제

안하는 데는 다 마땅한 이유가 있고 우리가 그게 할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꼭 이것도 포함해야 되고 아까 수리과학과 학생의 의견처럼 어떤 직무상의 역할을 제한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결정해 서면 그렇게 빨리 연서를 올리신다든지 해서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향일 것 같아요. 그리고 다행인 건 그렇게 빠르게 진행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21일에 우리가 다룰 수 있고 그 뒤에 타임 라인은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5일 그리고 그 유예 기간을 포함해서 진행할 수 있으니까 가장 이상적인 건 일단 최대한 학생분들께 우리 감사위원을 모집할 때 명확히 안내가 되는 게 좋잖아요. 본인들은 어떠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지원하실 수 있다 없다가 지금 안내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걸 좀 신경 쓰셔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적절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신경 쓰시고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한정현: 학생 회장께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감사원에서도 해당 내용 참고하셔서 금일 논의 사항, 논의안건의 결과에 따른 내용들을 잘 이행해 주셔서 다음 정기 중앙운영위원회까지 안건을 발의하거나 혹은 연소로 안건을 발의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 논의 내용을 정리하는 와중에 총학생회장께서 발언해 주신 내용이 결국에 논의 내용과는 다른 타임라인과 이렇게 진행했을 때 감사원에서 문제가 없는가였고 문제가 없다라고 감사원에서 받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제출된 의견은 이건이나 이의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이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이나 이의가 있다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으로 보여 앞서 설명드린 대로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견은 겸직금지 조항에 대해서 피감기구 기구장은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하되 회계 담당자의 범위와 역할 그리고 감사위원으로서의 범위와 역할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내려지고 내려진 후에 감사원의 추가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 개정안을 제안하여 연서 또는 중앙운영위원회 발의 등의 방법으로 발의할 것을 정리하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논의안건 논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학대회

비례대의원의 회계감사 참여안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 현재 전학대회 구조상 부학생회장이나 과 대표단이 대부분 전학대회 대의원으로 비례대의원으로 선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회장이 아니라 부회장까지도 겸직을 막을 경우는 그들의 참여가 의도한 바와 다르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원에서 이에 대한 일단 의견을 먼저 듣고자 합니다. 일단 저는 앞서 말씀드린 회칙 개정에 대한 결정적인 논의가 이뤄지기 전에는 부학생회장도 원안대로 하라면 포함이니까 재고를 요청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거를 이제 감안했을 때 본안에 대해서 이제 감사원에서 어떻게 뭐 재고를 하겠다든가 아니면 회계 담당자를 이제 그러면 부학생회장이나 과 대표를 포함을 안 시키는 방향으로 가서 이 안건을 이 논의 사항을 한번 끝까지 살펴보겠다거나 하는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감사원 말씀 먼저 듣고 발언권 부여하겠습니다.

○감사원장 김현섭: 사실 저희 내부의 더 포함해 두 명밖에 없긴 하지만 내부에서 나온 의견들을 말씀드리자면 저 말고 다른 감사위원님께서도 문화자치위원분들을 차출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걸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분의 의견을 따르면은 겸직금지 조항이 아예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분은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 사실 저희끼리에 나온 의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례대의원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집행부원 정도에서도 차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만 이제 일반 집행부원까지 가면은 일반 집행부원에서 차출할 수 있을 만한 이제 그런 근거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제외를 하였습니다. 만약에 일반 집행부원이나 아니면 이제 피감기관이 만약에 국 단위로 되어 있는 이제 만약에 상상효과나 이제 VOK 같은 경우에는 국 단위로 되어 있는데 국원 같은 경우 국원들을 차출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이제 비례대의원에서 이제 비례대의원보다 이제 좀 더 범위를 포괄적으로 넓히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 내부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차출을 하는 차출을 할 수 있는 이제 차출 사람을 어떠한 기준으로

할까에 대한 그러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의장 한정현: 논의를 마저 더 해보시겠다라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감사원장 김현섭: 차출 방식에 대한 논의를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의장 한정현: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총학생회장과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총학생회장 강동재: 네 제가 감사원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여러 전산학부 학생회장님 산업디자인학과 학생회장님 그리고 수리학과 학생회장님이 굉장히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 그거를 모두 다 정리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트해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중에 나왔던 게 지금 세 가지를 다 한 번에 할 필요가 없다. 이거를 모든 걸 다 변화시키려 할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 일단 차출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감사원에서 지금 우리 감사위원이 부족해서 더 사람을 모집해야 된다고 한다면 첫 번째로 그럼 이 일에 대한 정당의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고 있는가를 따져봤을 때 그래서 우리 논의 결과가 그럼 주어지도록 하자이고 두 번째는 저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례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지금 우리 두 명밖에 없고 적어도 몇 명이 필요하니까 지금 여기 우리 40명 명 중에서 여기 대상에 제외되는 이 사람들 말고 남은 10명 중에 우리가 3명을 무조건 뽑을 게 아니라 정말 그분들께 많이 홍보가 되어 되는데 저는 그동안 감사원에서 많은 그런 안내가 이루어졌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거든요. 이걸 제가 개인적으로 파악을 못해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감사위원을 모집할 때는 아무래도 각 기구에서 회계 담당자라든지 그런 일을 해 주시는 분들이 온다면 훨씬 업무도 수월하실 거고 또 그분들 자체가 자체적으로 느끼는 그런 업무상의 burden도 부담도 적을 것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분들에게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홍보 자료를 잘 만드셔서 준비 배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감사원에서 각 과 학생에게 요청드리고 싶은

내용을 잘 작성을 해 주시고 그걸 총학생회장이나 아니면 우리 회장단에게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중앙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운영위원분들께 각 과 학생에 배포해 주세요. 혹은 과 학생의 공지 채팅방에 배포를 해 주세요라는 식으로 안내가 이루어진다면 지금처럼 우리가 비례대의원을 차출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vok 같은 그런 산하기구 위원들은 차출을 해야 되느냐 그런 논의를 지금 당장 할 필요가 없고 앞으로도 그렇게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현: 네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그동안 나온 의견도 정리해 주신 것 같고요. 산업디자인학과에서도 동의한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정리하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세 가지 논의 사항을 모두 다 이행할 것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선은 말씀해주신 논의된 대로 첫 번째, 두 번째 논의사항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이 세 번째 논의사항 비례대의원의 회계 감사 참여에 대해서는 감사위원장이 한 번 재고를 해 주신 이 괜찮지 않을까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원에서 뭐 이렇게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감사원장 김현섭: 재고를 한다면 언제까지 통과가 될 수 있을지가 정말 궁금 합니다. 재고를 한다는 것은 이제 저희가 수정을 해서 다시 올리라는 의미일까요?

○의장 한정현: 적어도 이번에는 이걸 당장 바로 참여시키기보다는 활동비도 지급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보고 그렇게 했을 때 결과를 보고 저희가 한 번 더 논의를 해보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원장 김현섭: 사실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정말로 인원이 모집되었을 경우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라서 저도 이제 사실 이게 정말로 실행이 안 되었으면 좋겠지만 현재 상황을 보았을 때 실행이 안 되기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사실 이번에 안건 올린 이유 중에 제일 중요한 이유가 세 번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현재 두 명인데 돈을 준다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돈을 준다고 이제 모일 것이라는 이

제 보장을 할 수가 없죠. 이제 뭐라도 해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저런 논의를 해본 거지만 만약에 모집이 안 돼가지고 두 명으로 한다면 두 명이서 이제 인당 17개 정도의 단체를 감사를 해서 이제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럼 이제 인당에 읽어야 될 서류가 저희가 지금 줄이려고 많이 하고 있지만 적어도 이제 수백 장에 육박하기 때문에 이제 업무의 효율도 안 나올 거고 이제 모든 서류를 꼼꼼하게 읽을 수가 시간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사실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3번 같은 경우에는 꼭 어떻게든 이제 방학 전에는 통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재고를 한다고 하면 최대한 빠르게 감사원 내부에서 논의를 하여서 다음에는 어떻게든 이거에 관련된 이야기가 좀 더 점진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한정현: 어떤 말씀이시고 어떤 상황인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제가 최후의 마지막 수단으로서의 그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로써 이 세 번째 논의를 제안해 주신 거고 현재 감사원 상황 상 이 세 번째 상황까지 오지 않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내용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다만 다음 회칙 개정 다음 감사시행세칙 개정안에서 어떻게 심의가 되느냐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이 바뀔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말씀 주신 내용을 고려했을 때 감사원에서 그럼 이 부분도 논의를 마쳐 빠르게 진행해 주시고요. 다음에 이제 결국에 회칙 개정안을 감사시행세칙 안을 감사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을 발의하거나 혹은 연서로 했다면 연서로 발의했다면 심의하기 위한 중앙운영위원회가 8월 둘째 주에 정기회의에서 그런 안건을 심의하는 중앙운영위원회가 발생할 텐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8월 둘째 주에 개최할 수 있는 개회 예정인 개회할 확률이 높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중운위 차원에서 정해진 건 없기 때문에 다만 2주에 한 번 개최한다고 했을 때 8월 둘째 주에 개최할 소지가 가장 높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개최되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연서로 발의한 감사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을 심의·의결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감사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을 발의할 텐데 그 회의에서 결국에 정해지는 내용과 이 세 번째 안이 서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회의에서 함께 논의하는 걸로 다루면 어떨까요? 그때까지 감사원에서 논의를 정리해 주시고요. 그러면 타임라인적으로 괜찮을까요?

○감사원장 김현섭: 8월 7일에 이 의결을 받아서 통과가 될 수 있다면은 이제 그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의장 한정현: 여기서 일부가 수정되는 거라면은 오늘 여기서 통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여부를 여부나 가능성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내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확답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주요 골자가 감사위원이 모집되지 않을 경우에 회계 감사를 시행할 때 감사원 외에서 인원을 구한다라는 내용일 텐데 그에 대해서만 그러면 그런 최악의 상황이 왔을 때 그런 식으로 이 시스템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 중운위 차원의 의견이 어떤지 정도만 오늘 정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설명드리는 동안에 총학생회에서도 발언권 요청하신 걸로 보이고 산업디자인학과 학생회장께서도 요청하신걸로 보이는데 제가 확인한 순서대로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총학생회장께 먼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총학생회장 강동재: 저는 따로 발언권 요청드리지 않았습니다.

○의장 한정현: 네 알겠습니다. 산업디자인학과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산업디자인학과 학생회장 윤서진: 저도 따로 발언권 요청드리지 않았습니다.

○의장 한정현: 손들기가 저한테 뜨는데요. 이게 뭐 시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니면 제가 좀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빠르게 그러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회계감사를 감사원 외부 인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 외부 인원의 범위나 직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못할 것이고 오늘 회의에서 또 그 내용이 감사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서는 감사원이 진짜

최악의 상황에 와서 지금 2명에서 32개 사회단체를 다 보게 되었을 때 제가 협상 6명에서 보셔도 3월 정기 중운위 9월 정기 중운위까지 계속 못 마쳤어서 4월, 5월, 10월, 11월 늦을 때 심의했었는데 그것보다 그러면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사원 외부 인원을 어 활용을 해서 회계감사에 참여를 시키는 것에 대해서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를 위원들께서 말씀해 주시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산업디자인학과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산업디자인학과 학생회장 윤서진: 감사원에서 어떤 부분을 우려하는지 잘 이해하였으며 이번에 이제 활동비 지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므로 외부 인원에게 일을 주되 활동비 지급을 하는 정당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저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의장 한정현: 네 의견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들께서도 찬성 혹은 반대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외부 인원의 범위나 역할 직이 어디까지냐는 감사원에서 다음 회의 때까지 정리를 해서 논의안건을 다시 올리면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정한 부분은 최악의 상황에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못할 정도의 최악의 상황에서 감사원 외부 인원을 사용하는 것까지가 용인될 수 있는 범위인가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전산학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 감사원에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오늘 아마 중운위 이후에 활동비도 새로 생기고 겸직금지 조항을 다소 완화해서 지원 가능한 대상도 늘고 이것을 충분히 홍보를 한다면 4명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기는 합니까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경우에 4명이 모집되지 않았을 경우에 저도 활동비가 이번에 생긴 만큼 외부 인원에게 동일한 대가의 활동비를 지급하여 이런 감사에 참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은 합니까만 그 방식이 차출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출이 아니라 임시로 할 수 있는 지원의 범위가 늘어날 뿐이지 그게 반드시 차출 예비 뽑기든 어떤 형태로든 차출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리고 책임을 요하는 자리이기도 한 만큼 네 그런 형태는 옳바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현: 네 그러면은 전산학부에서는 사실 상으로 반대 의견을 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의견 더 받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반 의견이 하나씩 나왔기 때문에 다른 의견을 더 듣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산학부 혹시 추가로 발언권 요청하신 걸까요?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 제가 발언권 손 내리기를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한정현: 괜찮습니다. 총학생회장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총학생회장 강동재: 저도 본 논의를 마무리하고 싶어서 일단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지금 감사원에서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열심히 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명밖에 모집이 안 되면 어떡하느냐라고 하실 경우에는 그때는 지금처럼 전학대회 비례대의원분들께 여쭙본다든지 다시 한 번 그렇게 논의를 할 그분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렇게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걸 우리 다 해줄 만큼 해줬으니까 감사원 두 명이서 알아서 이러지는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차출 말고 우리 전학대회 비례대의원분들 아니면 범위에 다시 한 번 논의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n명의 풀을 대상으로 우리가 감사원 이 상황이 지금 이렇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라는 걸 안 내해서 위원을 확실히 모집할 수 있는 그런 논의의 장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만드는 것과 별개로 이미 이거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저는 완전히 동의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 감사원에서 오늘 여러 차례 얘기 드렸듯이 홍보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그러면 우리가 모집이 안 될 경우에 이렇게 하겠다라는 걸 전혀 삼아서 홍보가 미비해지거나 그런 걸로 인해서 실제로 전산학부 학생님께서 학생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일단 한번 최선을 다해보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라고 한 최선을 다해보는 게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한정현: 네 의견 감사합니다. 전산학부 학생회장의 의견과 비슷한 의미인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현재까지 제안된 논의된 의견에 따르면 사실상 이게 차출하는 게 아닌 이상은 논의의 장을 만들고 함께해 주실 것을 홍보하고 권장드리는데 텐데 이분화해서 생각을 하면은 이제 강제적으로 의무 내지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최악의 상황을 공유하고 논의의 장을 만들어서 그 논의의 장에서 최선의 결론을 이끌어낸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강제적으로 뭔가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이제 한 분 반대 의견 두 분 정도로 나오고 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논의가 된 것처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이렇게까지 해두겠다라고 했을 때 그 홍보에 얼마나 열심히 참여하는지나 그런 것에 대한 진위가 진정성이 실제로 감사원에서 정말 열심히 해 주셨더라도 차출되는 사람이 그것에 대한 단순히 기분이 좋지 않음으로써 그런 진위를 의심하는 일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내용처럼 지금 최대한 홍보를 다 해서 필요한 내용들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보고 그 이후에 정말로 지금 감사위원 둘이서 감사원을 구성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이러한 중운위 차원의 논의에 더해서 전학대회까지 논의를 가져가서 본회 차원의 큰 틀에서의 공감대를 이루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산업디자인학과 혹시 추가로 발언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산업디자인학과 학생회장 윤서진: 제가 아까 찬성 의견 드린 거에 꼭 차출만이 아니라 방금 전산학부나 총학생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것도 포함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의장 한정현: 보충 의견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 충분히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감사원에서도 앞선 세 분의 위원의 의견과 제가 정리된 내용을 모두 고려해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원에서도 충분히 이해가 되셨

을까요?

○감사원장 김현섭: 네 이해하겠습니다. 차출이 아닌 이제 모집 채용 이런 관점으로 새로 참여안을 올리 고자 하고 대신 모집 채용인 만큼 이제 굳이 비례대의 원으로 선정하여서 이제 뭔가 좀 책임감을 느끼게 하 거나 그런 그럼 이제 범위를 좁히거나 하는 필요가 없 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범위를 늘리는 방식으로 이제 모집 채용 방식으로 원하는 방법으로 다시 고려 하여서 최대한 빠르게 감사원을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의장 한정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말씀해 주신 내용대로 세 번째 논의사항에 대해서는 전학대회 비례 대의원회 회계 감사에 참여하는 우선은 재고하는 것으 로 하고 감사위원이 모집되지 않아서 최소한의 감사 위원수를 만족시키지 못했을 경우에 특정 직에게 참여 의무를 부여하는 방향이 아닌 좀 더 범위를 구체화해

서 그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모집 채용을 안내하고 논의의 장을 만드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논의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도 괜찮을까요? 특별히 의견 없으시면 이상으로 세 번 째 논의 내용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으로 논의안건 제3호 감사원 위원 결원 보충 논의안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한정현: 이상으로 금일 회의에 부의된 안건 의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폐회 성원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점검을 폐회 성원 점검을 마치도록 하겠습 니다. 이상으로 현재 시각 24시 41분 제2023-15회 중 앙운영위원회를 폐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 습니다. 감사합니다.

(24:41 폐회)

결 과

● 주요내용

○ 보고안건

(제1호) 총학생회장단 보고

- 원안대로 접수함.

(제2호) 단위별 운영 보고

- 원안대로 접수함.

(제3호)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위원회 운영 보고

- 원안대로 접수함.

(제4호) 의결기구 간사 선임 보고

- 원안대로 접수함.

(제5호) 신소재공학과 과대표 사퇴 보고

- 원안대로 접수함.

(제6호) 학생문화공간위원회 부위원장 사퇴 보고

- 원안대로 접수함.

(제7호) 학생문화공간위원회 부위원장 내부호선 보고

- 원안대로 접수함.

○ 심의안건

(제1호) VOK 2023년도 상반기 추가경정예산 심의안

-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제2호) 동아리연합회 2023년도 상반기 추가경정예산 심의안

-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제3호) 뇌인지과학과 학생회 설립 인준안 발의안

-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제4호)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 설립 인준안 발의안

-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 인준안건

(제1호) 중앙집행위원회 국서 체계 동의안

- 원안대로 의결함.

(제2호) 중앙집행위원회 국장 임명 동의안

- 원안대로 의결함.

○ 논의안건

(제1호) 2023년도 하반기 학생회비 분배 비율 논의안

- 원안대로 2023년도 하반기 학생회비 분배 비율 심의안을 구성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전체학생대표자회의로 발의하기로 논의함.

(제2호) 번역평가제도 개편 논의안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번역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하는 것에 관하여서는 학생회칙 제132조에 따라 소통국제화위원회는 본회 산하기구의 사업·공고에 대한 영문 번역 감독,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본회 산하기구로 볼 수 있으므로 번역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논의함.

- 산하기구의 공식 소통 매체에 관한 소통국제화위원회의 능동적인 조사·파악 방법에 관하여서는 학과 학생만 소속되어 있는 카카오톡 채팅방을 공식 소통 매체로 사용하는 경우 등은 소통국제화위원회에서 산하기구의 공식 소통 매체를 능동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소통국제화위원회에서 산하기구의 공식 소통 매체를 공고 또는 공지하고, 공식 소통 매체가 최신화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실제 활성화된 소통 매체와 다르게 공식 소통 매체를 지정한 경우에는 소통국제화위원회의 모니터링 또는 소속 회원들의 제보를 통해 공식 소통 매체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하기로 논의함.
- 공지 및 공고의 영문 번역에 관하여 산하기구 기구장의 인식 개선과 책임 의식 고취도 병행하여야 한다는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추가적·정기적인 번역 양식 안내의 세부 사항에 관하여서는 반기별 1회 이상 카카오톡 채팅방 공지와 산하기구 대상 전체 메일 발송을 통해 추가적·정기적으로 번역 양식을 안내할 것을 제안하기로 논의함.
- 생활관자치회 번역 모니터링 및 번역 서비스 제공 여부에 관하여서는 학부 생활관자치회는 본회 산하기구가 아니므로 번역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며, 본회 산하기구가 아니더라도 소통국제화위원회에서 학부·대학원 생활관자치회에 번역 서비스는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논의함.

(제3호) 감사원 위원 결원 보충 논의안

- 감사원 위원 활동비 지급안에 관하여서는 감사원 위원 활동비를 감사원 예산으로 편성하여 심의받는 것에 대해 중앙운영위원회 차원에서 그 당위성과 적절성을 인정하고 활동비의 산정 기준은 감사원에서 제안한 2안(피감기구의 회계감사를 시행하는 예산 규모에 따른 차등 지급)으로 정하기로 논의함.
- 감사원에서 제안한 감사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에 관하여서는 겸직금지 조항 중 회계 담당자의 겸직 금지 여부에 관하여 감사원에서 감사원 위원의 업무 범위나 권한을 명확히 정리한 이후에 회계 담당자의 회계감사 참여가 회계감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 감사원에서 감사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을 제안하되, 피감기구의 기구장은 겸직금지 대상에 포함하기로 논의함.
- 겸직금지 조항의 취지에 관하여서는 감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감사원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의장의 설명이 있었음.
-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비례 대의원의 회계감사 참여안에 관하여서는 감사원에서 재고하되, 2023년도 하반기 감사원 위원이 모집되지 아니하거나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겸직금지 대상에 속하지 아니한 비례 대의원 등을 대상으로 참여를 독려하고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차원의 논의를 통해 타개책을 모색하기로 논의함.

● 표결결과

안건	재석	찬성	반대	기권	결과	비고
보고안건 제1호 총학생회장단 보고	-	-	-	-	원안 가결	이의유무 표결
보고안건 제2호 단위별 운영 보고	-	-	-	-	원안 가결	이의유무 표결
보고안건 제3호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위원회 운영 보고	-	-	-	-	원안 가결	이의유무 표결
보고안건 제4호 의결기구 간사 선임 보고	-	-	-	-	원안 가결	이의유무 표결
보고안건 제5호 신소재공학과 과대표 사퇴 보고	-	-	-	-	원안 가결	이의유무 표결
보고안건 제6호 학생문화공간위원회 부위원장 사퇴 보고	-	-	-	-	원안 가결	이의유무 표결
보고안건 제7호 학생문화공간위원회 부위원장 내부호선 보고	-	-	-	-	원안 가결	이의유무 표결
심의안건 제1호 VOK 2023년도 상반기 추가경정예산 심의안	13	13	0	0	원안 가결	
심의안건 제2호 동아리연합회 2023년도 상반기 추가경정예산 심의안	17	17	0	0	원안 가결	
심의안건 제3호 뇌인지과학과 학생회 설립 인준안 발의안	17	17	0	0	원안 가결	
심의안건 제4호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 설립 인준안 발의안	15	15	0	0	원안 가결	
인준안건 제1호 중앙집행위원회 국서 체계 동의안	14	14	0	0	원안 가결	
인준안건 제2호 중앙집행위원회 국장 임명 동의안	14	13	0	1	원안 가결	

【표결사항】

○ 심의안건 제1호

재석 중앙운영위원(13인)

찬성 중앙운영위원(13인)

총학생회장 강동재 / 부총학생회장 한정현 / 동아리연합회 회장 오윤석 / 기계공학과 학생회장 손선호 / 기술경영학부 학생회장 고은서 / 바이오및뇌공학과 학생회장 왕예준 / 산업디자인학과 학생회장 윤서진 / 수리과학과 학생회장 박재익 /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이창섭 / 융합인재학부 학생회장 김시은 / 전기및전자공학부 학생회장 홍의상 /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 / 항공우주공학과 학생회장 윤이습

반대 중앙운영위원(0인)

기권 중앙운영위원(0인)

○ 심의안건 제2호

재석 중앙운영위원(17인)

찬성 중앙운영위원(17인)

총학생회장 강동재 / 부총학생회장 한정현 / 동아리연합회 회장 오윤석 / 기계공학과 학생회장 손선호 / 기술경영학부 학생회장 고은서 / 물리학과 학생회장 박세현 / 바이오및뇌공학과 학생회장 왕예준 / 산업디자인학과 학생회장 윤서진 / 생명과학과 학생회장 안준서 / 생명화학공학과 학생회장 이돈영 / 수리과학과 학생회장 박재익 /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이창섭 / 융합인재학부 학생회장 김시은 / 전기및전자공학부 학생회장 홍의상 /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 / 항공우주공학과 학생회장 윤이습 / 화학과 학생회장 최우정

반대 중앙운영위원(0인)

기권 중앙운영위원(0인)

○ 심의안건 제3호

재석 중앙운영위원(17인)

찬성 중앙운영위원(17인)

총학생회장 강동재 / 부총학생회장 한정현 / 동아리연합회 회장 오윤석 / 기계공학과 학생회장 손선호 / 기술경영학부 학생회장 고은서 / 물리학과 학생회장 박세현 / 바이오및뇌공학과 학생회장 왕예준 / 산업디자인학과 학생회장 윤서진 / 생명과학과 학생회장 안준서 / 생명화학공학과 학생회장 이돈영 / 수리과학과 학생회장 박재익 /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이창섭 / 융합인재학부 학생회장 김시은 / 전기및전자공학부 학생회장 홍의상 /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 / 항공우주공학과 학생회장 윤이습 / 화학과 학생회장 최우정

반대 중앙운영위원(0인)

기권 중앙운영위원(0인)

○ 심의안건 제4호

재석 중앙운영위원(15인)

찬성 중앙운영위원(15인)

총학생회장 강동재 / 부총학생회장 한정현 / 기계공학과 학생회장 손선호 / 기술경영학부 학생회장 고은서 / 물리학과 학생회장 박세현 / 바이오및뇌공학과 학생회장 왕예준 / 산업디자인학과 학생회장 윤서진 / 생명화학공학과 학생회장 이돈영 / 수리과학과 학생회장 박재익 /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이창섭 / 융합인재학부 학생회장 김시은 / 전기및전자공학부 학생회장 홍의상 /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 / 항공우주공학과 학생회장 윤이습 / 화학과 학생회장 최우정

반대 중앙운영위원(0인)

기권 중앙운영위원(0인)

○ 인준안건 제1호

재석 중앙운영위원(14인)

찬성 중앙운영위원(14인)

총학생회장 강동재 / 부총학생회장 한정현 / 기술경영학부 학생회장 고은서 / 물리학과 학생회장

박세현 / 바이오및뇌공학과 학생회장 왕예준 /
산업디자인학과 학생회장 윤서진 / 생명화학공학과
학생회장 이돈영 / 수리과학과 학생회장 박재익 /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이창섭 / 융합인재학부
학생회장 김시은 / 전기및전자공학부 학생회장
홍의상 /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 /
항공우주공학과 학생회장 윤이습 / 화학과 학생회장
최우정

반대 중앙운영위원회(0인)

기권 중앙운영위원회(0인)

○ 인준안건 제2호

재석 중앙운영위원회(14인)

찬성 중앙운영위원회(13인)

총학생회장 강동재 / 부총학생회장 한정현 /
기계공학과 학생회장 손선호 / 물리학과 학생회장
박세현 / 바이오및뇌공학과 학생회장 왕예준 /
산업디자인학과 학생회장 윤서진 / 생명과학과
학생회장 안준서 / 생명화학공학과 학생회장 이돈영
/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이창섭 / 융합인재학부
학생회장 김시은 / 전기및전자공학부 학생회장
홍의상 / 항공우주공학과 학생회장 윤이습 / 화학과
학생회장 최우정

반대 중앙운영위원회(0인)

기권 중앙운영위원회(1인)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

상기 회의록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함.

의 장 한 정 현 _____

위 원 윤 서 진 _____

위 원 이 창 섭 _____